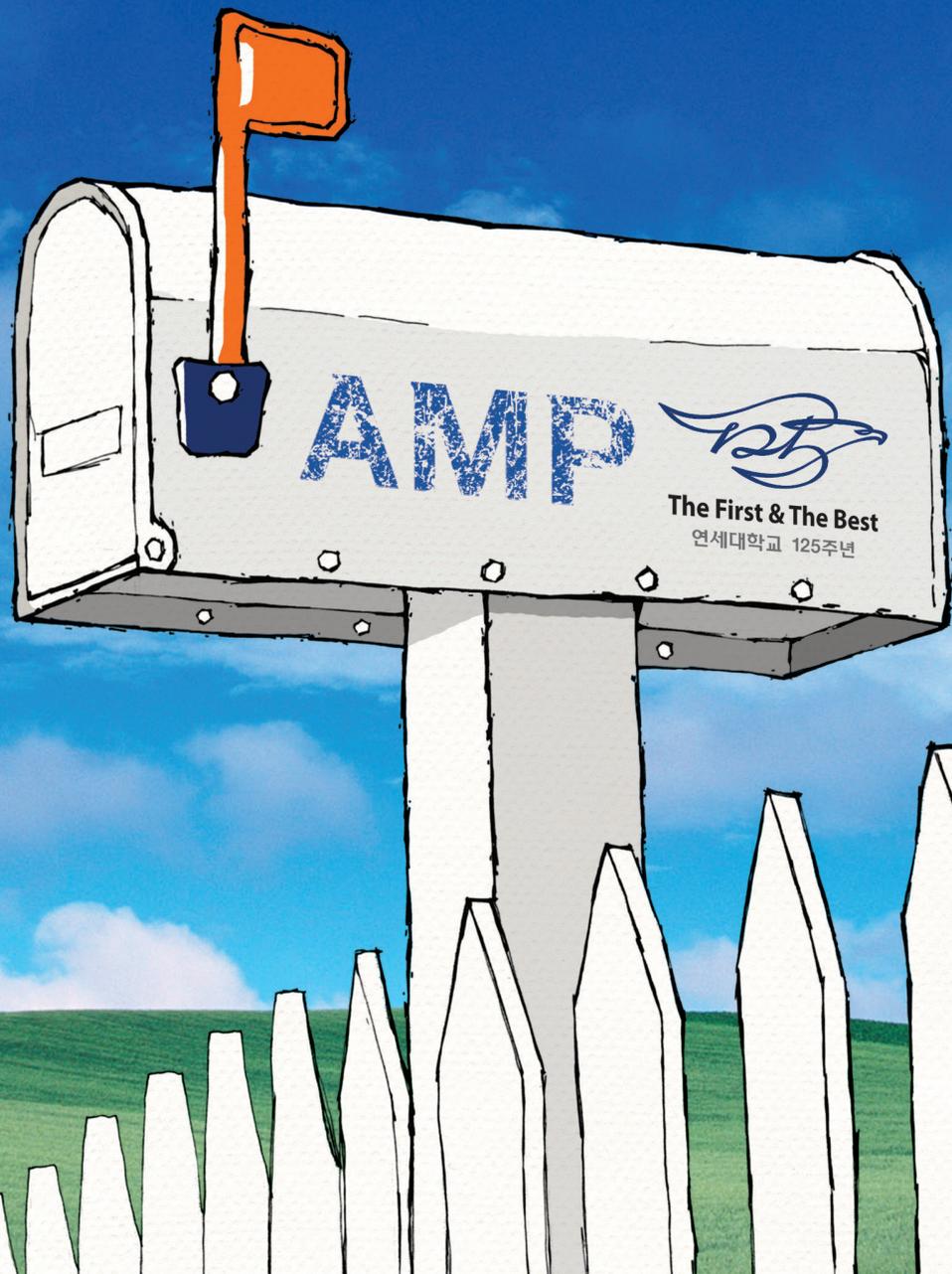


Vol.30

2010

# YONSEI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ECO PIONEER

海  
洋  
解  
法

(주)조양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친환경선도기업입니다.

· 서해 폐기물처리회사로는 유일하게  
자체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CHOYANG.co.Ltd

본점 : 인천시 중구 향동7가 82-1 (TEL:032-256-2525 FAX:032-256-2522)

서울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9 메가벤처타워 301호 (TEL:02-2677-2600 FAX:02-2675-8999)

환경업체로는 최초로 ISO14001 인증업체 · 서해 폐기물처리회사로는 유일하게 자체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꿈을 펼쳐라

DH

Love your **D**ream  
Keep your **H**ope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목동 **DH** DREAM & HOPE 대 학 학 원 | 교육상담 02)2651-5151

# Right People , Right Place , Right Time



## The Global HR Partner

글로벌 수준의 헤드헌팅 회사를 지향하며  
여러분의 사업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휴먼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양강현 (67基)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타운 A 2001

Tel : (02)715-2362 Mobile : 010-5377-2362

E-mail : khyang@humansociety.co.kr

# “36Hole, 모두가 예술이다”

- ✓영남권 최고의 명문 국제규격 36홀(회원제 7,387yds/ 퍼블릭 7,119yds)
- ✓창녕IC에서 5분/ 대구, 마산, 창원 30분 소요



[회원제 2홀 진행, Par5, 520m, 569yds] 장엄하게 나뉘어 보이는 홀 환경과 레이크를 따라 형성된 캐어웨이로 골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골퍼의 실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개의 캐어웨이는 홀 자체의 매력에 더해줍니다.

*Hillmaru*  
힐마루 컨트리클럽



창녕 36홀 • 가평 27홀 (2009년 착공 예정) • 포천 54홀 (2010년 착공 예정) | 현장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현장 055)520-800 0  
대구 053)526-8 100



발행인 김태욱 편집인 박인서 발행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0-1 용현빌딩 406호 사무국 Tel. 02)702-7554, Fax. 02)702-5011  
기획·기사 김은주 편집·제작 (주)티앤아이미디어 02-785-5346 인쇄 상림문화(주) 031-948-5600



### Section 1 AMP News

Special News 1	2010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개최 안내	16
Seminar	2010 신년하례회 및 정창영 전 총장 초청 세미나	18
Association News	2010 정기총회 및 신임 총동창회장 추대식	20
Executive Commission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10대 임원 위촉식	22
Notice Board 1	임원 명단 및 주소록, 분담금 안내	24
Interview 1	김태욱 제10대 총동창회장 인터뷰	30
Special News 2	녹색 필드 위에 펼쳐진 단합의 장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34
Alma Mater News	125년 역사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연세	44



### Section 2 On the Cover

Theme Story 1	내가 만드는 인생 지침서, 자서전 쓰기	46
Dissertation	69기 최우수 논문 수상작 '미래 자동차 기술'	50
Theme Story 2	초심 유효기간을 두 배로! 초심 유지의 조건	54
Book Review	책 속에 숨겨진 성공을 찾다	58



22



34



76

### Section 3 Trend



Trend Report	급변하는 시대, 인맥 관리도 디지털화	60
Healthy Life	자유와 낭만의 외국 여행, 건강도 챙기셨나요	62
Travel 1	언제 봐도 즐거운 연세대학교 AMP #66 강력 멤버들	64
Travel 2	낙동강 따라 흐르는 조선 성리학의 발자취	66
Winning Habit	첫 만남, 웃는 얼굴로 승부하라	72
Successful Keyword	말은 힘이다, 힘있는 자들의 화법 엿보기	74

### Section 4 AMP People



Interview 2	53기 이종화 고문, 연세 AMP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	76
Interview 3	65기 박재현 동문,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강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다	78
Alumni Movement 1	4천여 동문의 식구가 된 연세 AMP 67기, 68기	80
Alumni Movement 2	함께 가는 화합의 길을 걷다, 69기 수료	82
Alumni Movement 3	동문 동정	84
Notice Board 2	동문 게시판	88
Information	동창회 수익 사업 안내	95

# Publisher Greetings

08

Gradu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AMP



연세를 응원합니다.

# 연세 AMP 동창 회보 제30호를 발행하며!



존경하는 연세 AMP 동문 여러분!

활기찬 새 여름의 기운에 더해 붉은 월드컵의 열기로 한층 더 뜨거웠던 대한민국입니다. 축구 경기에도 이기기 위한 전술이 있듯이 사업 경영에도 성공하기 위한 전술이 있습니다. 메인 플레이어가 판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연세 AMP 동문들도 대한민국의 메인 플레이어로서 우세한 경기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붉은 열정으로 연세를 응원합니다!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최고경영자의 길을 걷고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AMP 동문님들께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어,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간의 행사와 함께 동문 회원의 근황, 기고문, 학교 소식 등을 엮어 『연세 AMP 동창 회보』 제30호를 발행하였습니다. 한 차원 높은 화합과 정보 교류의 창으로, 우리 총동창회의 명맥을 잇는 알차고 품격 있는 소식지로 꾸며질 수 있도록 30호 발행을 위해 힘써 주신 여러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고언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려지고, 읽고 싶은’ 품격 있는 회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30번째 발행된 동창 회보는 우리 고유의 기록과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보 발행을 통해 소중한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세 AMP 총동창회는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또한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천여 동문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동창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쏟아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연세 AMP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사업 뜻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  
Greetings 1

10

Gradu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AMP





## AMP 동창 회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세 AMP 총동창회 김태옥 회장님과 연세 가족 여러분!

벌써 한 해의 허리가 접혔습니다. 이맘때 창을 열면 7월은 액자 속의 그림이 되어 벽 저만치에 바람 없이 걸려 있는 듯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얼마 전에 발표된 ‘2010년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아시아 대학 순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계 평가 점수가 높아진 것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면서,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과 우리 대학교가 아시아 대학 상위 20위 이내에 진입했고, 우리 대학교는 그 가운데 유일한 사립 종합 대학입니다. 지난해에는 더 타임스 세계 대학 평가에서 151위로 도약함으로써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연세로 발전했습니다.

올해로 연세대학교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창립 이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민족에 봉사하는 ‘따뜻한 엘리트’를 길러 내 왔습니다. 연세는 걸음걸음마다 새 세상을 열었으며, 가는 길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세는 국내 대학과의 경쟁에 연연하기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이루기 위한 더 크고, 더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연세는 125년의 성취를 디딤돌로 삼아 이제 세계로, 미래로, 새로운 도전과제를 이루기 위해 새 여정을 시작합니다. 국제캠퍼스 개교를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연세 창립 125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연세인들이 언제나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힌 연세 125년, 이제 세계의 빛이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학의 새 지평을 열어 갈 역사 창조에 자랑스러운 연세 AMP 동문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힘을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연세 AMP 제30호 동창 회보는 동문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지가 될 것입니다. 제30호 동창 회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세 AMP의 결속력을 다지고 동문 상호 간의 어울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옥 총동창회장님과 제10대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보 발행에 힘써 주신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세 AMP 동창 회보가 동문 여러분의 친교의 장이자, 모교와 동문들 간에 거리감 없이 소통하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가족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옮기는 발걸음마다 하나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AMP 동문 여러분, YONSEI AMP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AMP 동문 여러분, YONSEI AMP 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각별히 이번에 서른 번째 동창 회보를 발간하게 되신 우리 AMP 동창회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동문 여러분, 저 역시 한 사람의 독자로서 AMP 회보 발간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동창 회보 역시 동문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여행했던 동료들, 사회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선후배들의 귀한 소식을 가득 담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문과 학교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동창 회보를 알차고 재밌게 제작하느라 애쓰신 김태옥 총동창회장님과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문 여러분, 2010년 올해 우리 AMP는 설립 35년째를 맞고 70기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오는 2015년 설립 100주년을 맞는 연세 경영의 역사에서 AMP는 가장 젊고 참신한 프로그램인 셈입니다만, 실제로는 AMP 동문 여러분이야말로 연세 경영의 만형으로서 언제나 앞서서 모교를 지원하고 성원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위에서 최강의 결집력을 보여주신 AMP 동문 여러분께 재삼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문 여러분, 저와 우리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은 현재 AMP 교육과정의 개선, Global MBA를 비롯한 MBA 프로그램의 혁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와 동문이 단합하여 노력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경영전문대학원의 위상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경영전문대학원이 국제무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한다면 당연히 동문의 위상 역시 크게 오르게 됩니다. 노력의 결실을 학교와 동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문 여러분께서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滿足)

없는 것을 소원하면서  
시방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게 하소서

예전엔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참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언제나 성실(誠實)하고  
거저 얻으려는 마음은  
행여라도 갖지 말게 하소서

성실은 기쁨의 싹이요  
게으름은 두려움의 싹이 되니  
마음의 조화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방으로 만족하고  
시방을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사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글\_46기 신영학 문화이사  
하상건설(주) 대표이사





Section 1

# AMP News

Special News 1	2010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개최 안내	16
Seminar	2010 신년하례회 및 정창영 전 총장 초청 세미나	18
Association News	2010 정기총회 및 신임 총동창회장 추대	20
Executive Commission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10대 임원 위촉식	22
Notice Board 1	임원 명단 및 주소록, 분담금 안내	24
Interview 1	김태옥 제10대 총동창회장 인터뷰	30
Special News 2	녹색 필드 위에 펼쳐진 단합의 장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34
Alma Mater News	125년 역사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연세	44

## 2010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개최 안내



## 2009 제15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

(좌측부터, 이두철 상임고문 / 박상용 원장 / 고문중 수상자 부부 / 김점동 수상자 부부 / 권오국 수상자 부부 / 손영식 명예회장 / 김승제 상임고문)

지난 2009년 12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및 제15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800여 명의 동문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영예로운 최고경영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연세최고경영대상]은 우리 동창회가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 경영 철학 실천, 경영 실적, 사회봉사 활동,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등의 선정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건설 부문에 (주)동훈 김점동 회장(21기), 유통 부문에 (주)평화유통 고문중 대표이사(59기), 제조부문에 (주)국일특수인쇄 권오국 대표이사(65기)가 2009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동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문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이병남 문화이사(22기), 김종원 상임이사(26기), 조재관 상임이사(37기), 조태래 상임이사(39기), 조순행 상임이사(50기), 구재범 홍보이사(58기)가 수상했다. 올해 역시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 동창회와 모교를 빛내며 멋지게 활약한, 훌륭한 동문들의 수상이 기대된다.

## ‘2010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제16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일 시 2010. 12. 1(수) 18시  
장 소 여의도 63시티 2층 컨벤션센터  
참석 대상 전 동문 (부부 동반 가능)

- 전 참가 동문에게 고급 기념품 증정, 다채로운 행사, 행운권 추첨.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무국으로 참가 신청 바랍니다.

## 제16회 연세최고경영대상 수상자 후보 추천 접수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세최고경영대상 수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예로운 최고경영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연세최고경영대상]은 본 동창회가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 경영 철학 실천, 경영 실적,  
사회봉사 활동,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등의 선정 기준에 의해 심사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한 2010. 11. 1(월) 17시까지  
접수처 연세 AMP 총동창회 사무국 Tel. 02-702-7554



## 2010 신년하례회 및 정창영 전 총장 초청 세미나

‘2010 신년하례회 및 정창영 전 총장 초청 세미나’가 지난 2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공식 행사, 세미나, 만찬, 전년도 연세최고 경영인의 밤 행사 결과 보고의 순서로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귀히 귀한 백호랑이 띠 해에 동문이 한데 모인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제2의 도약과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반석이 될 것이다.”라며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4천여 연세 동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큰 뜻,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다. 또한 올 한해도 AMP 총동창회 임원진을 필두로 동문과 함께 ‘연세 가족’으로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동문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서 박상용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그동안 구상해 온 학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을 구현하게 돼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고자 “새롭게 개편한 Global MBA 과정에 국내외 우수한 지원자를 유치하고자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장학금 확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전문대학원이 수년 내에 세계적인 명문 경영대학원 수

준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연세 경영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그동안 경영대학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헌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다음으로, 손영식 회장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나선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은 ‘세계 속의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일본의 two list decades, 중국의 버블 가능성과 역사의 교훈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2009년 3/4분기에는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 경제도 불경기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구가 많은 대륙은 성장률이 둔화하였으나 위기 속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태국, 홍콩 등 인구가 적은 개방 경제들은 큰 타격을 받아 2008년 9월에서 2009년 3월까지 GDP가 평균적으로 연 13% 감축되었다.”라며 IMF는 세계 경제가 10년에 3.9%, 11년엔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기대 이상의 빠른 경기 회복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금융 정책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 투자 등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빨리 쓰면 다시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 반면 너무 늦추면 자산 시장(주식, 부동산)의 버블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실업은 큰 문제로 미국은 10%이나 광의의 실업률은 무려 17%를 넘는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실업률은 3% 정도지만 광의로는 10%대를 넘는다.” 고 말했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힘의 균형이 중국, 인도 등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중국은 독일을 넘어어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서 세계 최대 금융 기관 5중 4개가 중국에 있으며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보여준 특징 가운데는 세계 금융 체제의 취약점도 확연히 드러났고, 100년에 한 번 있는 주택 가격의 거품을 예상 못 한 경제학, 특히 효율적인 시장(efficient market)에 기초한 금융 경제학의 기초도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도 재조정되고 G7 대신 G20의 등장도 주요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two lost decades에 대해서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어 민간 수요가 살아나기 이전에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반복적으로 썼다며 그 결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주요국들이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가르쳐 줬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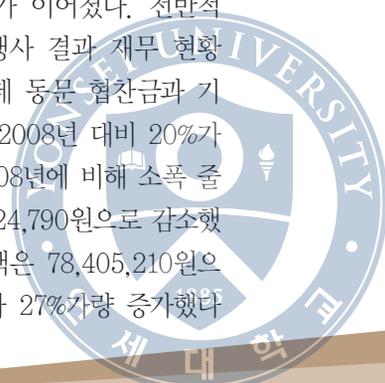
정 전 총장은 “한국 경제는 2009년 GDP의 성장률은 0.2%였다. 2010년에는 4% 중반 이상의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는데, 수출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설비 투자나 소비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며

“주요 단기 과제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정책 과제이며, 가계 부채가 증가하여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인 불안도 경계해야 한다.” 고 했다. 또 “아직 민간 부문의 수요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하반기에는 여건이 충족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자원이냐 돈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 지식과 기술이다. 과학과 기술의 결합에 의한 독일 주도의 이차 산업 혁명과 비교하면 남미는 독립 직후 모두 종속된 경제이다. 또 동아시아의 급속한 성장, 남미의 불투명한 성과 및 아프리카의 퇴보, 독일과 일본의 전후 급속한 부흥의 예시를 들어 ‘People(culture) made all the difference(모든 것은 사람, 문화 과학과 기술이 정한다).’ ” 는 역사의 교훈을 전했다.

정창영 전 총장 초청 세미나가 끝나자 참가자 전원은 힘찬 박수로 세미나에 화답했다. 이어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다짐을 제창하는 케이크 커팅과 건배 제의, 만찬이 진행되며 동문 간의 근황과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성구경 재무이사의 ‘2009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행사 결과 보고’ 가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연세최고경영인의 밤 행사 결과 재무 현황이 2008년보다 나아진 가운데 동문 협찬금과 기별 협찬금, 수상자 협찬금이 2008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줄어 184,413,420원에서 168,524,790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2009년 결산 잔액은 78,405,210원으로 2008년 21,486,420원보다 2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10 정기총회 및 신임 총동창회장 추대식

김태욱 신임회장 추대

지난 2010년 4월 8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정기총회 및 신임 총동창회장 추대식이 열렸다.

총동창회장 추대식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손영식 총동창회장, 김승재 명예회장, 김동주 상임고문, 김태욱 수석부회장, 김영택 수석부회장, 김종업 감사, 황진호 감사 등 20여 명의 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박인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장단회의에서는 차기 총동창회장 추대, 감사 인준, 2009 회계 결산보고 등의 안건이 진행되었다.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나 임기가 다 되었기에 신임 회장을 추대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을 서두로 “여러 동문과 의견을 나눈 결과 정통을 세워나가야겠다는 취지로 수석부회장 중에 사회 경력도 많고, 봉사 활동도 많은 김태욱 수석부회장을 추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한 회장단은 만장일치로 김태욱 수석부회장의 제 10회 연세 AMP 총동창회장 추대에 동의했다.

이에 김태욱 수석부회장은 “내가 과연 맡아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많은 분의 추천과 초대 사무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동문과 함께 연세 AMP 총동창회가 한걸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임 회장 추대에 이어 김종업, 황진호 감사의 감사 추대도 진행됐다. 이어서 손영식 총동창회장의 2009 회계 결산보고 이후, 지난 1년간 손영식 총동창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를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2009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에서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전기 이월금 2억 7천여 원에서 4천여만 원이 증가하여 비교적 우수한 운영으로 평가된다.”고 밝히며 주요 증빙과 명세표를 별도의 자료로 동문들에게 제출하였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회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밝혔다. 이어 김종업 감사와 함께 2009년 사업비 내역에 대해 감사를 맡았던 황진호 감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 회계 처리가 증빙과 일치하고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업무 진행이 정관과 회칙에 부합되었음.”을 확인 보고 했다.

이어 손영식 총동창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태옥 수석부회장이 추대되었음을 보고하며 정기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참석 동문들 역시 만장일치의 큰 박수를 보냄으로써 추대식이 이어졌다.

김태옥 신임 총동창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국내 최고의 최고 경영자 과정인 연세대학교 AMP 총동창회장에 추대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지난 임기 동안 총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영식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새롭게 총동창회장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나 된

화합과 참여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연세 AMP 동문은 하나 된 화합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참여로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위기에서 힘이 되는 것이 경영자들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 AMP의 정보와 인맥을 바탕으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배출하는 산실이다. ‘연세 AMP를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는 없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과정을 통해 배출된 최고 리더들이 기업 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AMP의 총동창회장에 추대된 만큼 이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최고의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장 민주적인 최고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감사에는 김종업·황진호 감사가 9대에 이어 10대에도 연임되었다. 감사 선임에 이어 케이크 커팅 및 만찬이 진행되었다. 케이크 커팅에는 김태옥 신임 총동창회장, 손영식 9대 총동창회장, 박상용 원장, 김영택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택 수석부회장의 건배 제의로 “연세 AMP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를 외쳤다. 모든 식순을 끝내고 함께 자리 한 동문들과 안부를 묻으며 저녁 식사를 즐기는 만찬을 끝으로 ‘2010 정기총회 및 신임 총동창회장 추대식’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10대 임원 위촉식

“새로운 AMP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다”



## 연세 AMP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이 열린다

지난 5월 1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AMP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10대 임원 위촉식이 열렸다.

박인서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10대 임원 위촉식은 회칙 개정과 동창회기 인계인수, 추대장 전달과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영식 제9대 총동창회장(現 명예회장)과 김태욱 제10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황병주 고문, 김성만 고문, 원종철 고문, 이종화 고문, 김종업 감사, 황진호 감사 등 여러 임원진과 동문이 참석하였다.

첫 순서는 회칙 개정으로, 지난 4월 8일 10대 총동창회장 추대식이 있었음을 알린 뒤, 김태욱 제10대 총동창회장이 개정안을 발표했다. 총 4개의 회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모두 가결되었다.

이어서 연세 AMP 총동창회가 새로운 임원을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는 공연이 열렸다. 테너 정능화와 하만택이 꾸민 축하 공연이 끝난 뒤 손영식 명예회장이 김태욱 총동창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인계인수하였다. 손영식 명예회장이 동창회기를 받은

김태욱 제10대 총동창회장이 동창회기를 흔들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 온고지신 정신을 실천하다

동창회기 인계인수가 끝난 뒤 손영식 제9대 총동창회장의 이임사가 시작되었다. 손영식 9대 총동창회장은 먼저 지난 9대 집행부를 이끌어 주신 임원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2년간 미흡하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임원진 여러분의 성원과 동문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AMP 총동창회가 제10대 회장단과 함께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그리고 제10대 집행부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게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이 신임 김태욱 총동창회장님께도 그대로 이어져 우리 동창회가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늘 참석하고 싶은 그러한 동창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제10대 총동창회장을 격려했다.

손영식 제9대 총동창회장의 이임사가 끝난 뒤 감사패와 기념품 전달이 이어졌다. 이어 김태옥 제10대 총동창회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김태옥 제10대 총동창회장은 “먼저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특히 직전 회장인 손영식 회장과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또 “국내 최초 경영자 과정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AMP의 동문이라는 이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 모든 조직은 총동창회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또한 동문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정보 교류와 화합, 친교의 장을 만들어 AMP와 연세의 발전에 이바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경영전문대학원,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될 것

김태옥 제10대 총동창회장의 취임사가 끝난 뒤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축사에서 “김태옥 신임 총동창회장에게 기대가 크며 제10대 총동창회가 제9대 총동창회 임원진이 이루어낸 업적을 이어받아 더욱더 결속력 있고 튼튼한 연세 AMP가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또한 동문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단과 대학에 ‘대외협력실’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며 법과 대학이 없어지며 우수한 사람이 모두 경영 대학에 들어왔고 그렇기에 경영전문대학원 경쟁이 무척 치열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경영전문대학원 경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될 것이기에 김태옥 회장과 의논하여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라 전했다.

축사가 끝난 뒤 2부를 여는 공연이 있었다. 테너 정능화와 하만택의 ‘목련화’, ‘희망의 나라로’ 노래로 이루어진 2부 공연이 끝난 뒤 제10대 임원 위촉식이 이어졌다.



### 연세 AMP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제10대 총동창회 임원은 김태옥 총동창회장, 손영식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상임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감사,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부회장(당연직, 선임직), 이사(당연직, 선임직), 상임이사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0명의 임원이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2년간 우리 동창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 봉사할 제10대 임원 위촉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두철 상임고문의 축사가 있었다. 이두철 상임고문은 “고문 위촉을 받으러 울산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성 높은 AMP 동문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빛내줘서 저의 자긍심이 무척 높습니다. 이 모두가 학교의 명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AMP가 되길, AMP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김태옥 제10대 총동창회장과 손영식 명예회장, 이두철 상임고문을 비롯한 회장단 등의 임원들이 이·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 커팅을 하며 “연세 AMP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를 외쳤다. 모든 식을 끝내고 함께 자리한 동문들은 제10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우리 동창회의 무한한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며 만찬을 즐겼다.

### 회장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25	총동창회장	김태욱	시호비전그룹	회장	02)3446-5001
17	명예회장	손영식	(주)조양	회장	02)2677-2600
16	상임고문	김용운	mook(주)	회장	
22	상임고문	이정익	서광종합개발(주)	대표이사 회장	02)3702-5555
38	상임고문	이두철	삼창기업(주)	회장	052)282-3000
50	상임고문	김승제	(주)이스타코	대표이사 회장	02)2654-6812
22	고문	황병주	(주)동영아이텍/동영물산(주)	회장	02)733-0378
26	고문	김성만	김성만법률사무소	변호사	02)536-7741~2
41	고문	조시영	대창공업(주)	대표이사	031)496-3022
47	고문	원종철	삼원인쇄(주)	대표이사	031)997-6781
53	고문	이종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02)6085-3631
48	감사	김종업	공인회계사·세무사김종업사무소	대표	032)472-2035
51	감사	황진호	변호사 황진호법률사무소	변호사	02)533-0755
43	수석부회장	김영택	(주)아이비김영	회장	02)3478-9055
64	수석부회장/골프회장	송윤택	(주)윤성 T&A	대표이사	02)413-7700
51	수석부회장/등산회장	김철	(주)P&TEL	대표이사	02)538-2891
49	여성수석부회장	박순옥	(주)네슈라화장품	대표이사	031)610-0755~6
29	상임부회장	임향자	(주)포토스페이스	대표이사	02)2264-2381
38	상임부회장	박삼복	에어팩스(주)	회장	031)404-6081
40	상임부회장	윤의권	(주)더굿	회장	043)284-1000
47	상임부회장	원제철	(주)자이언트아시아	대표이사	02)2665-3715
50	상임부회장	현진왕	온세시큐리티(주)/온세캐피탈(주)	대표이사 회장	02)2108-1751

### 자문위원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21	자문위원장	김점동	(주)동훈	회장	041)564-9411
학	자문위원	김기영	광운대학교	총장	02)940-5001
학	자문위원	정창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02)6261-0615
학	자문위원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	
학	자문위원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02)2123-3250
7	자문위원	우경선	신안건설산업(주)	회장	02)320-9800
8	자문위원	곽우석	에스큐 C&C	회장	02)476-8057
13	자문위원	조길용	광명실업/광명농업	대표이사	
18	자문위원	김용구	골든벨상사(주)	상무	
22	자문위원	감경철	CTS 기독교 TV	사장	02)6333-1010
23	자문위원	오자복	대한민국 성우회	고문	
28	자문위원	정승열	前 한국도로공사/한국화장실협회	사장/회장	031)226-7001
30	자문위원	이재서	(주)디씨엠	대표이사	031)499-2600
31	자문위원	공한수	(주)Big Dream & Success	원장	02)774-3230
31	자문위원	박순배	세연약국	대표약사	02)364-6140
32	자문위원	현소환	IPI/News&News	총신회원/대표	02)567-1298
33	자문위원	김재업	중앙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02)595-5549
33	자문위원	박성대	상도전기통신(주)	대표이사	02)995-1258
34	자문위원	구연찬	장암LS(주)	대표이사	02)2632-9441
37	자문위원	정운식	(주)서울항공	회장	02)755-1144
38	자문위원	송원근	신원화학(주)	대표이사	031)432-6688

자문위원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38	자문위원	안종열	(주)중앙엔록스	회장	032)670-7000
38	자문위원	유성호	예인가구	대표	031)949-8605
38	자문위원	채봉석	서울시의회	의원	02)492-5656
39	자문위원	김동주	前 국회의원		02)3471-3700
40	자문위원	김병욱	강남고려병원	원장	02)876-7611
40	자문위원	손일권	밝은미래정형외과	이사장	031)969-3900
42	자문위원	배경호	신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031)862-6430
43	자문위원	김순무	(주)한국아쿠르트	고문	02)565-1222
47	자문위원	윤용남	前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47	자문위원	이현구	(주)까사미아	대표이사	031)702-7415
48	자문위원	김철	(주)성전사	대표이사	052)243-7785,9
49	자문위원	김기주	(주)성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02)703-7871
49	자문위원	이규인	(주)코엑스아쿠아리움	회장	
50	자문위원	박동출	(주)골든파워	대표이사	
50	자문위원	박창복	(주)엑스원	대표이사	02)555-7931
52	자문위원	박제훈	예일건설(주)	회장	031)979-3200
53	자문위원	박재돈	(주)한국파마/(주)소야	대표이사	02)558-1277
54	자문위원	박인권	이지치과의원	대표원장	02)546-5426
57	자문위원	정희동	(주)청호나이스	회장	02)587-5034/5
58	자문위원	강삼영	아람인테크	회장	02)552-1919
59	자문위원	박민자	포디존 그래픽스/써미트빌	대표	02)2631-3101
59	자문위원	이창복	(주)유일건영/(주)유일기연	회장	02)581-6850~4
60	자문위원	한민기	(주)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	02)756-7061

부회장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7	당연직부회장	장준식	영화사(주)		
8	당연직부회장	민남규	자강산업(주)	대표이사	031)454-6801
9	당연직부회장	이수현	(주)해동선박	회장	051)246-9890
11	당연직부회장	이세복	DRF	회장	02)702-3770
13	당연직부회장	황의홍	前 (주)삼익악기	독일지사장	
14	당연직부회장	진형근	前 (주)동양전기	대표이사	
15	당연직부회장	이만영	(주)광일	대표이사	02)797-0321
16	당연직부회장	임경빈	前 (주)익천건설	회장	
20	당연직부회장	유봉학	남부지역균형발전협의회	사무처장	02)761-1500
22	당연직부회장	장철수	(주)일양토건	대표이사	02)584-4224
23	당연직부회장	명영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고문	02)535-0864
24	당연직부회장	이창순	(주)이노컴	대표이사	02)2664-2631
25	당연직부회장	이영삼	삼영(주)	회장	02)839-3030~6
26	당연직부회장	신명균	(주)대영정밀	대표이사	031)434-5092~4
27	당연직부회장	김용배	CCI기술금융	회장	02)512-2054
28	당연직부회장	박상배	새마을금고	이사장	02)584-8500
29	당연직부회장	정완진			
30	당연직부회장	문선남	(주)나노엔터프라이즈	회장	
31	당연직부회장	정우철	(주)일삼	회장	02)755-1310
32	당연직부회장	오혁진	오혁진법률사무소	변호사	02)536-9985

## 부회장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33	당연직부회장	김재환	란 스튜디오	회장	02)797-5100
34	당연직부회장	유재동	산화실업(주)	대표이사	02)516-2900
35	당연직부회장	이성욱	(주)삼천리알이	대표이사	031)861-7736
36	당연직부회장	김인만	(주)대성산업사	대표이사	031)542-6121~5
37	당연직부회장	안희규	(주)길천물산	대표이사	02)386-5200
38	당연직부회장	김천식	현대정밀산업(주)	대표이사	02)497-2350
39	당연직부회장	김병하	일경산업(주)	회장	031)480-0121
40	당연직부회장	황용환	삼환토공(주)	대표이사	02)322-5544
41	당연직부회장	전후방	JR투자자문회사	고문	02)512-0990
42	당연직부회장	이용훈	(주)유니에스	대표이사	02)587-3381
44	당연직부회장	김대웅	(주)MBO 산업	사장	02)417-1021
45	당연직부회장	이장만	(주)르반트	대표이사	02)2645-4431
46	당연직부회장	안성우	(주)한라 M&D	대표이사	02)2601-2858
47	당연직부회장	이흥기	(주)골드라인	대표이사	031)785-7222
48	당연직부회장	김장호			
49	당연직부회장	조옥선	한우리외식산업(주)	사장	02)512-3103
50	당연직부회장	김용근	(주)영신엠텍	대표이사	031)434-2300
52	당연직부회장	박한진	(주)영종하이텍	대표이사	031)946-6291
53	당연직부회장	김재연	에이스종합건설(주)	대표이사	02)2109-6000
54	당연직부회장	송호준	(주)제이비에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070)7113-1015
55	당연직부회장	이범용	삼성디지털프라자	대표이사	02)2155-0333
56	당연직부회장	이재옥	(주)태산로테이트먼트	대표이사	02)579-6271
57	당연직부회장	김종문	(주)인터맥스	대표이사	02)599-6688
58	당연직부회장	우인명	前 (주)한산종합건설/ 와이즈금융기술(주)	대표이사/대표	02)6673-1000
59	당연직부회장	고문중	(주)평화유통	대표이사	031)908-4112
60	당연직부회장	정윤곤	정문출판(주)	대표이사	02)2269-9301
61	당연직부회장	이정희	(주)한얼공업	대표이사	031)358-0111
62	당연직부회장	박복수	사운드파이프코리아(주)	사장	02)791-0500
63	당연직부회장	김태암	(주)몬티스타텔레콤	회장	070)7100-7026
64	당연직부회장	권병국	성부그룹	회장	02)3463-5440
65	당연직부회장	전용열	(주)서복상사	대표이사 회장	02)419-8700
66	당연직부회장	이주섭	(주)삼희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02)3461-0797
67	당연직부회장	김용범	(주)이씨스	대표이사 회장	02)850-9600
68	당연직부회장	최승석	(주)SK&C종합건설	대표이사	031)265-3430
69	당연직부회장	이성복	UCLA미치과의원/선도 파라다이스(주)	원장/대표이사	061)537-7528
21	선임부회장	임흥순	(주)윙흥기업	대표이사	02)742-1234
26	선임부회장	이관치	(주)약국신문/장업신문	대표이사/회장	02)2636-5727
28	선임부회장	김충식	한국교양문화원	원장	02)3431-9001
36	선임부회장	김석태	새한유조(주)	대표이사	02)2691-2301
37	선임부회장	정영주	(주)월드비전	대표이사	032)666-2213
45	선임부회장	조영문	(주)오에스티	대표이사	02)319-7900
46	선임부회장	성구경	(주)성보크리미	회장	02)834-6000
48	선임부회장	허진	CENEC컴플레이션	대표이사	031)262-8850
50	선임부회장	배경식	(주)케이에이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02)852-2523
50	선임부회장	정은택	Total S&C	대표이사	02)413-7577
51	선임부회장	주재식	강동서울외과의원	원장	02)477-8488
56	선임부회장	이재항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신대 이엔지	대표이사	02)3476-4540

부회장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57	선임부회장	신학섭	(주)동산기공	대표이사	02)2625-3781
58	선임부회장	장희석	대화 P&B	대표	031)479-5206~8
59	선임부회장	남윤성	활로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이사	02)3141-0114
60	선임부회장	고창석	(주)세보엠이씨	부사장	031)213-5355
61	선임부회장	권오준	(주)다음세계	대표이사	02)799-2900(직)
62	선임부회장	이주형	이주형회계사무소	대표	054)773-0889
63	선임부회장	김영주	(주)한울글로벌텍	회장	02)6243-6000
63	선임부회장	이태길	21C 미술문화포럼 신조형작가협회	회장	
64	선임부회장	고재희	(주)다빈월드	대표이사	02)780-3116
65	선임부회장	권오국	(주)국일특수인쇄	대표	02)2277-9493
65	선임부회장	손윤호	HMC디지털	대표	02)893-7291~5
65	선임부회장	이병용	(주)자연과환경	대표이사	02)557-9830
66	선임부회장	장경득	메가플렉스공업(주)	대표이사	031)981-2381
66	선임부회장	한승기	한성마그네틱	대표	02)807-9333
67	선임부회장	김낙찬	(주)현재어학원	이사장	02)595-4177
67	선임부회장	김용문	롱플란트치과그룹	대표원장	02)782-2282
68	선임부회장	두강현	대양한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031)984-3061
68	선임부회장	이재선	(주)세창스틸/대성특수강관(주)	대표이사 회장	031)432-9958
68	선임부회장	이희연	신정부기술(주)	대표이사	02)2057-3244
69	선임부회장	박영근	리더스 헬스케어	원장	02)2184-3001
69	선임부회장	변희경	(주)우빈반도체	대표이사	02)333-1800
69	선임부회장	송영천	법무법인 청담	대표변호사	02)599-2100
50	사무총장	박인서	(주)로알디엔엘	대표이사	02)335-6660

상임이사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50	사무총장	박인서	(주)로알디엔엘	대표이사	02)335-6660
47	재무부총장	이상규	(주)유앤아이	대표이사	02)514-1188
59	사무부총장	김윤희	상림문화(주)	대표이사	031)948-5600
65	여성사무부총장	이은정	(주)오토 에베뉴	대표이사	02)376-5616
43	조직이사	박상진	미모사양복	대표	02)757-3456
51	총무이사	박성훈	(주)더골프	대표이사	02)2163-5708
51	기획이사	신무현	(주)델리푸드서비스	대표이사	02)3453-0755
26	섭외이사	김종원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02)3408-3185
39	사업이사	조태래	금산인삼약초영농조합	대표	041)753-0215
42	의전이사	이영재	(주)목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02)516-6561~5
46	문화이사	신영학	하상건설(주)	대표이사	02)3664-0360
54	정보이사	이건행	(주)다이안옵티칼	대표이사	02)2040-7900
55	체육이사	김찬태	(주)파스칼리물산	대표이사	031)383-3756
58	홍보이사	구재범	(주)KECC	대표이사	02)571-6221

이사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5	당연직이사	이시원	부천산업(주)	대표이사	02)2189-7501
6	당연직이사	김진원			

## |이사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7	당연직이사	장옥환	(주)교통신문	대표이사	02)595-2988/9
11	당연직이사	이종익	前 대림통상(주)	부사장	
14	당연직이사	방순택	중앙제관(주)	대표이사	031)726-4750
15	당연직이사	송재승	前 (주)풍천	대표이사	
16	당연직이사	강학송	서울도심재개발관리(주)	대표이사	02)780-5042
17	당연직이사	장용환	(주)지지인터내셔널	대표이사	02)2269-3838
20	당연직이사	서강석	내구연 본부장	본부장	02)741-6915
22	당연직이사	윤여덕	윤덕기업(주)	대표이사	02)536-8073
24	당연직이사	배기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27	당연직이사	서기남	CS Overseas Trading	대표이사	02)792-6095
28	당연직이사	정남일	마린렌터(주)	회장	02)421-0067~8
29	당연직이사	유인만	(주)혜성팬테크	대표	031)981-8312
30	당연직이사	윤영상	한국패션소재협회	부회장	02)576-7247
31	당연직이사	안정현			
32	당연직이사	유관모	중정종합건설(주)	대표이사	02)3487-2415~7
33	당연직이사	김용규	(주)명보	대표이사	032)666-9966
34	당연직이사	김연상	(주)페트라건설	회장	02)595-7377
35	당연직이사	김명환	세종대학교	주임교수	02)3408-3486
37	당연직이사	조재관	토성공영(주)	대표이사	02)2615-2217
38	당연직이사	박찬명	명륜산업	대표	02)497-2350
41	당연직이사	김영환	(주)ART-HOUSE	대표이사	02)335-3939
42	당연직이사	허진	뉴월드모던주택	부사장	
44	당연직이사	조성대	(주)아나패스	대표이사	02)6922-7400
45	당연직이사	김진한	(주)엔이티	대표이사	02)3663-8400
46	당연직이사	유열	동양비즈니스폼(주)	대표이사	02)538-7587
47	당연직이사	유영근	템피스트투자증권(주)	대표이사	02)3705-5800
48	당연직이사	기형도	(주)에이스미디어테크	대표이사	070)7585-7777
49	당연직이사	김원섭	(주)신화플러스	대표이사	02)3673-4530
50	당연직이사	조순행	(주)NINE B&B	대표이사	02)2265-2500
52	당연직이사	양병옥	삼호개발(주)	전무	02)582-6600
53	당연직이사	최중권	POD World(주)	대표	031)423-4258
54	당연직이사	김진홍	크림스앤클로버	대표	02)511-3814
55	당연직이사	마인준	(주)M TO M	대표이사	02)774-8008
56	당연직이사	박선홍	(주)스피드뱅크	대표이사	02)593-8770
57	당연직이사	이진철	J.C.물산	대표이사	02)2217-8411,4
60	당연직이사	임응순	(주)에이스미디어	대표이사	02)780-3383
61	당연직이사	노봉한	(주)삼우아이티	대표이사	02)2202-2051
62	당연직이사	김대현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	02)2034-0114
63	당연직이사	최재진	인성종합건설(주)	사장	032)437-7744
64	당연직이사	김우찬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	02)536-8300
65	당연직이사	김은기	(주)삼화에이스	전무이사	02)523-2242
66	당연직이사	김광수	스카이창업투자(주)	대표이사	031)782-3290
67	당연직이사	정성택	(주)풀업라인	대표이사	043)642-2151,2
68	당연직이사	박홍숙	울촌신약(주)	대표이사	031)782-5300
69	당연직이사	이동준	아주인쇄(주)	대표이사	02)719-7181
23	선임이사	유지만			
24	선임이사	김중엽	신일금속센터(주)	회장	02)2295-7000

이사단

기수	AMP 직책	성명	회 사 명	직위	회사전화
26	선임이사	유병국	유아트스페이스	대표	02)544-8585
26	선임이사	정영화	삼우전기(주)	대표이사	031)215-0384
37	선임이사	김응모	대원흥산(주)	대표이사	02)3409-3251
38	선임이사	박주일	락희제약(주)	회장	031)986-3233
41	선임이사	이덕수	(주)타임즈코어	회장	02)2628-5800
47	선임이사	김용기	유창이앤씨(주)	대표이사	031)683-6561
49	선임이사	양준호	호정물산(주)	대표이사	031)739-5136
53	선임이사	방동원	(주)신아이엠에스/(주)신아이티에스	대표이사	02)508-5444
57	선임이사	남재현	(주)프렌닥터/프렌닥터 내과	원장	02)556-0365
58	선임이사	한영일	해올림(주)	사장	031)998-6741
60	선임이사	박성진	(주)시스테크비즈	대표이사	02)2636-2100
65	선임이사	임영식	(주)선진	대표이사	031)836-9000~4
65	선임이사	한익준	(주)한성에이치앤씨	대표이사	02)783-4777
66	선임이사	김민수	태원비엠씨(주)	대표이사	031)717-8321~6
67	선임이사	양강현	(주)휴먼소사이어티	대표이사	02)715-2362
67	선임이사	이진욱	해브앤비(주)	대표이사	02)3462-9052
68	선임이사	백흥종	(주)동남개발	대표이사	031)907-1708
69	선임이사	강승규	(주)목산산업	이사	032)679-9091

◆제10대 임원분담금 입금 안내◆

동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임원분담금은 동창회 기금으로써  
 각종 행사와 기타 동창회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분담금을 소중히 아껴 쓰겠습니다.

**입금은행** 하나은행  
**계좌번호** 112-910148-25007  
**예 금 주** 김태옥(연세대학교 AMP 총동창회)

# 더 높이 비상하는 연세 AMP를 꿈꾼다. 김태옥 제 10대 총동창회장 인터뷰

세계 최고, 최대의 봉사단체 국제라이온스협회354-C지구 총재 취임

연세 AMP 제 10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김태옥 회장을 만났다. 변화와 화합으로 거듭나는 연세 AMP가 되기 위해, 총동창회장으로서 어떤 각오로 동창회를 이끌지 물었다.



본 인터뷰지는 연세 AMP 총동창회 제 10대 김태욱 총동창회장님의 경영 이념과 2010년 연세 AMP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 연세 AMP 총동창회 제10대 총동창회장직을 맡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이자 최고의 CEO들이 모인 연세 AMP 총동창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 드립니다.

**2. 총동창회 회장을 맡기 전, 전날 밤까지도 계속 회장직을 정중히 고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사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연세 AMP 총동창회 회장을 맡기 전 가장 우려하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A** 연세 AMP 동창회는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고의 최고경영자과정의 산실로서 그만큼의 역사가 있고 훌륭한 동창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 중의 리더를 맡는 것은 물론 감격스러운 일이나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다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연세 AMP 총동창회의 회장으로서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내부 교류 강화는 물론 선도적인 외부 활동 및 동문과 학교를 위한 봉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3. 연세 AMP 총동창회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가장 자신을 격려하였던 인물이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조언을 들으셨나요?**

**A** 손영식 직전회장님과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본인이 초대 사무총장 출신이라 많은 선후배 동문들이 격려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4. 연세 AMP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창조적인 리더의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실행 능력 개발을 위한 사례와 토론, 그리고 실행 학습 중심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배출한 경영학의 최고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AMP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CEO가 없다는 전설이 회자될 만큼 우리 과정을 통해 배출된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업 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은 국내 최고의 경영자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곳을 졸업한 여러분들도 국내 최고의 경영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연세 AMP는 최고경영자들이 꼭 밟아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자기 계발에 충실히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교육이야말로 폭넓은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혀나갈 수 있게 하고, 기업 경영에서도 앞선 선택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 동안 연세대 AMP 과정을 비롯해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했고, KAIST, 고려대 등 20여 개의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언론홍보, 컴퓨터, 환경, 엔터테인먼트, 사회체육, 국제관광 등 폭넓은 분야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이 저의 삶과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이런 배움의 열정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연세 AMP가 되기 위해 총동창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연세 AMP는 국내 최초의 최고경영자과정이고, 국내 유수의 최고경영자를 길러낸 산실입니다. 최초/최고를 이끄는 최고경영자과정의 선두주자 동문회로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와 결속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기본적으로 참여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동문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연세 AMP에 참여하고 우리가 화합할 때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참과 화합으로 연세 AMP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7. 현재 안경 사업을 모태로 한 시호비전그룹을 이끌고 계시는데, 안경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시호비전그룹은 안경 제조, 수출, 수입, 유통을 하는 한국 안경업계의 대표적 최고기업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호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오늘의 안경사 제도를 도입했고 국민시력보전에 대하여 앞장서오며 오늘의 시호비전을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공연과

이벤트를 기획, 오페라단을 운영하여 문화사업과 외식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화물 물류기업으로서 화물 카고 터미널을 19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 8. 회사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회사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항상 다른 기업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선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CEO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호비전그룹이 동종업계 내부의 선진 경영 시스템 도입에 가장 앞서 나간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2003년에 전자적 POS(Point of Sale·판매시점관리) 시스템과 ERP(전자적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한 웹 기반 통합 정보 시스템 '비즈포스'를 도입했습니다. 앞선 2002년에도 안경업체에선 처음으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MIS)를 도입해 유통과정을 단축시켰습니다. 어떤 분야든 경쟁자가 있으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장서서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디자인연구인력 10여 명의 '인체공학안경디자인연구소'를 출범해 혁신적인 디자인 경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9.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수' 직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배움에만 머물지 않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르침을 통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 동안 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한성대학교와 초당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G.M.P 교수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식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저 역시 또 다른 배움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을 내기가 다소 어려워졌지만 학생들과 함께했던 경험은 저에게도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 10. 금년에는 세계 최대, 최고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에 취임 하셨고, 평소 사회 봉사활동에도 각별하신데요.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A**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는 성장하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면 내게 맞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도움을 받기보다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즐겁게 나눔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회사 전체가 나눔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와 대한노인회 등과 함께 우리 이웃의 시력을 받게 해주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의 달에는 소년, 소녀가장을 돕고 국가보훈의 달에는 국가 보훈 가족들을 만나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여 더 많이 베풀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최고의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총재를 맡아 취임하여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 93차 세계대회에 참석하였으며, 호주 교민을 위로하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봉사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저에 맞는 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11.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A** 물론 지금까지 진행해 온 봉사활동 중 어느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 봉사활동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안경사 협회 회장 재임 시 했던 봉사활동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노인 분 3,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시력 체크를 해주고 무료로 안경을 기증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 못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돈이 있어도 손자, 손녀들에게 주기 위해 안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쓰십니다. 저 또한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시력을 측정한 후 안경을 씌웠을 때 밝아진 사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시력이 나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을 때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회사만의 맞춤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정말 고마운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앞으로 더 좋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12. 회사 경영과 봉사활동, 각종 협회와 단체의 회장 직을 맡고 계시니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가시간에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A** 물론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몫 하느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려 하고, 공연도 보고, 여행도 자주 떠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가까운 곳이라도 짧은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 하기에 좋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이 묵묵히 지켜봐 준 것에 고맙고 어려울 때면 항상 아내의 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3. 가족에게는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인가요?**

**A** 자상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 동안 너무 바쁜 생활로 평균 이하의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지요.

**14. 연세 AMP의 총동창회 회장 이외에도 카이스트 AIM 총동문회장, 그리고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총재 직을 맡으셨는데요. 책임감이 남다를 것으로 압니다. 세 단체의 회장직을 맡음으로써 느꼈을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세 단체를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지요?**

**A**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 단체 모두 각자의 전통과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선배님들이 만들고 쌓아온 전통과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는 동시에, 변화와 화합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단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리더로서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중심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동창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체로 세계 속의 최고경영자과정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15.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스타일리쉬한 외모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시다면 살짝 귀띔해 주세요.**

**A**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1시간 이상씩 하는 운동이 꾸준한 건강관리의 비결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체력관리가 필수입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시절부터 이어온 공인 9단의 태권도는 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스포츠 댄스를 배우며 부부금실은 물론 리듬감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박자 맞추는 일도 어려웠지만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16. 연세 AMP 총동창회의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A** 우리 총동창회를 항상 볼 것이 있고(視), 배울 것이 있고(學), 얻을 것이 있고(得), 즐거움이(樂)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한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7. 임기가 끝난 뒤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니까?**

**A** 우리 연세 AMP 총동창회 여러분들은 국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최고 리더들인 만큼 총동창회를 통해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내 최고의 맨 파워그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동창회장으로서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중심역할을 할 것입니다.

**18. 앞으로 연세 AMP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연세 AMP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연세 AMP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연세 AMP가 될 때, 총동창회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히 되는 한편, 끈끈한 인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총동창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녹색 필드 위에 펼쳐진 단합의 장

지난 5월 31일 한양CC에서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우리 동문의 화합 도모와 건강 증진, 즐겁고 유익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되는 골프대회가 올해는 46팀이라는 최고의 참가 팀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46팀 200여 명의 우리 동문이 참가한 ‘2010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는 초여름 그린 필드를 시원하게 빛냈다.

송운택 골프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대회가 이렇듯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문님들과 배우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우리 동창회와 골프회가 화합과 단합의 꽃을 피우는 오늘,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옥 총동창회장은 “오늘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송운택 골프회장님과 임원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힘차게 라운딩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 연세 AMP의 명성에 걸맞게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라며 파이팅을 외쳤다.



송운택 골프회장 개회사



집행부



이동하는 동문들



자선 리본 판매

손영식 명예회장은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번 대회가 이렇듯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었다.” 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김영택 전 골프회장은 “신나는 모임, 유익한 모임, 보람찬 모임을 확인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동창회가 더욱 더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며 힘찬 라운딩을 다짐하였다.

박상용 원장은 “이렇듯 역동적으로 결속하는 모습이 ‘과연 연세 AMP 답다’ 며 이러한 대회가 반갑고 기쁜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학교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김승제 상임고문과 이정익 상임고문, 김점동 자문위원장 역시 “이번 대회를 통해 동문의 일원으로 보람을 느끼고, 대한민국 최고 명문인 우리 연세 AMP 총동창회가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과 우정을 다지며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김태옥 총동창회장, 손영식 명예회장, 송운택 골프회장, 박상용 원장, 김승제 상임고문, 이정익 상임고문, 원종철 고문, 김영택 전 골프회장(수석부회장), 김철 수석부회장, 박순옥 여성수석부회장, 김점동 자문위원장의 멋지고 시원한 시타와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다.

골프대회를 마치고 이어진 2부에서는 방송인 이 상운의 재치 있는 입담과 가수 오현숙의 열창으로 피로를 풀며 모두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곧 이어 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홀마다 협찬자의 이름을 건 VVIP 홀을 운영하 며 깜짝 이벤트를 선사한 이번 대회에서 메달리 스투는 63기 김영주 동문이 차지하였고 개인 우승의 영광은 61기 이상경 동문이 그 영예를 안았다. 단 체 3위는 이주섭 회장이 이끄는 66기가, 단체 준 우승은 이정희 회장이 이끄는 61기가, 김용문 회 장이 이끄는 67기는 ‘단체 우승’을 각각 차지하 였다. 가장 많이 참석한 기수에게 주는 최고의 상 인 ‘최다 참석 기수 상’은 24명이 참석한 59기가 차지하였다. 이날 메달리스트를 차지한 63기 김영 주 동문(주)한올글로벌텍 회장은 63기이기 때문에 63타를 쳐서 이날을 기념하고 싶다는 신념으로 최 선을 다했더니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며 골프 회에 1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VVIP 홀을 포함해 약 1억 천만 원의 창조금과 약 2천5백만 원 상당의 협찬품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에서 김태옥 총동창회장은 박상용 원장에게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2010 연세 AMP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는 동문 모두 하나 되어 골프를 즐기며 우정을 나누는 골프대회의 진수를 보여준 멋진 대회였다.

- 1) 김태옥 총동창회장 VVIP홀
- 2) 손영식 명예회장 VVIP홀
- 3) 좌로부터 김영택 골프회 명예회장, 박상용 원장, 손영식 명예회장, 김태옥 총동창회장
- 4) 좌로부터 송윤택 골프회장, 이종화 고문, 김태옥 총동창회장, 김점동 자문위원장



# 행사장 이모저모



박상진 골프충무국장의 사회



붐비는 접수처



화사한 여성 동문들



골프공을 한입에 쏘~옥 M;



이걸 어떻게 집어 넣지?



회장단 시타





# 행사장 이모저모



1 좌측부터 김태욱 총동창회장, 김영주 골프회부회장(메달리스트), 손영식 명예회장, 송운택 골프회장



2 김태욱 총동창회장과 개인우승 이상경 동문(61)



3 손영식 명예회장과 단체우승 67기(강명희 동문)



4 송운택 골프회장과 최다참석기수상 59기(박규상 59기 골프회장)



5 이정익 상임고문과 개인준우승 고재희 동문(64)



6 권병국 골프회 수석부회장과 개인3위 정은택 동문(50)





1 박상용 원장의 축사



2 경영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전달



3 2부 행사를 준비하는 박상진골프총무국장과 이상규 재무부총장



4 원제철 상임부회장과 롱기스트우승 정성택 동문(67기)



5 이상규 재무부총장 위촉



6 만찬을 즐기는 동문들

## 성원하여 주신 동문님



## ◆동문 협찬금◆

기수	AMP 직책	성명	회사	직위	금액(원)
25	총동창회장	김태욱	시호비전그룹	회장	30,000,000
64	골프회장	송운택	(주)윤성 T & A	대표이사	20,000,000
17	명예회장	손영식	(주)조양	회장	5,000,000
22	상임고문	이정익	서광종합개발(주)	대표이사 회장	2,000,000
50	상임고문	김승제	(주)이스타코	대표이사 회장	3,000,000
47	고문	원종철	삼원인쇄(주)	대표이사	1,000,000
43	골프회 명예회장	김영택	김영대학편입	회장	5,000,000
51	수석부회장/등산회장	김철	(주)P&TEL	대표이사	5,000,000
64	골프회 수석부회장	권병국	성부그룹	회장	10,000,000
21	자문위원장	김점동	동훈그룹 힐마루CC	회장	3,000,000
47	상임부회장	원제철	(주)자이언트아시아	대표이사	3,000,000
21	부회장	임흥순	(주)유희기업	대표이사	1,000,000
50	사무총장	박인서	(주)로알디앤엘	대표이사	1,000,000
59	59기 원우회	고문중	(주)평화유통	회장	3,000,000
63	골프회 부회장	김영주	(주)한울글로벌텍	회장	3,000,000
63	골프회 부회장	하태석	에스제이인터콥	회장	3,000,000
66	부회장/66기 회장	이주섭	(주)삼희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1,000,000
66	골프회 부회장	한승기	한성마그네틱	대표	3,000,000
67	골프회 부회장	김낙찬	(주)현재어학원	이사장	4,000,000
67	부회장/67기 회장	김용범	(주)이씨스	대표이사 회장	3,000,000
67	부회장	김용문	롱플란트치과그룹	대표원장	3,000,000
67	이사	양강현	(주)휴먼소사이어티	대표이사	1,000,000

동문님들의 성원으로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성황리 마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찬품◆

기수	성명 / AMP직책	회사명	협찬물품
25	김태욱 총동창회장	시호비전그룹 회장	이태리 아르마티스 썬글라스 10점
38	안종열 자문위원	(주)중앙앤룩스 회장	파워글루코사민 5세트(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
38	박삼복 상임부회장	에어팩스(주) 회장	당뇨측정기 10대
38	김천식 부회장	현대정밀산업(주) 대표이사	브로치 10점
43	박상진 골프총무국장	미모사양복 대표	고급양복 1착
49	박순옥 여성수석부회장	(주)네슈라화장품 대표이사	오프리 블록앤블록 화이트닝 선크림 200점
51	박성훈 총무이사	(주)더골프 대표이사	드라이버 나비텍 1점 페어웨이 우드 1점
54	이건행 정보이사	(주)다이안옵티칼 대표이사	썬글라스 7점
58	한영일 이사	(주)해올림 사장	고급 한과 10세트
59	김윤희 사무부총장	상림문화(주) 대표이사	이온정수기
65	이은정 여성사무부총장	(주)요트 에베뉴 대표이사	켈러웨이 볼 10 BOX
65	한익준 이사	(주)한성에이치앤씨 대표이사	타이틀리스트 볼 10 BOX
65	이용근 골프 행사 총무	(주)다함피앤피 대표이사	유틸리티우드 2개
66	김민수 이사	태원비엠씨(주) 대표이사	호주 명품 스킨닥터스 화장품 6점
66	황인천	(주)넥센 전무이사	골프공 45 BOX

◆특별 협찬품◆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박상용

연세 심볼 테이블 조각보 50 점

## 2010 총동창회장배 『종합 시상 내역』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분		시상품	수상자	비고
개 인 상	전후반 극복상	유틸리티	66기 김광수	
	전후반 근접상	유틸리티	44기 김재홍	
	최다 보기상	벤츠 캐디백 세트	60기 임응순	
	최다 파상	벤츠 캐디백 세트	62기 서용수	
	최다 버디상	벤츠 캐디백 세트	43기 이정석	
	니어리스트(여성)	트로피 및 타이틀리스트 카메론 퍼터 33"	17기 이순자	
	니어리스트(남성)	트로피 및 타이틀리스트 카메론 퍼터 34"	67기 최진	
	롱기스트(여성)	트로피 및 타이틀리스트 카메론 퍼터 33"	66기 윤정숙	
	롱기스트(남성)	트로피 및 타이틀리스트 카메론 퍼터 34"	67기 정성택	
	3위	트로피 및 LG 공기청정기	50기 정은택	
준우승	트로피 및 삼성 로봇청소기	64기 고재희		
특별상 - 송 ZONE		(1) 반경 4M - 20만 원	없음	
		(2) 반경 2M - 50만 원	없음	
		(3) 반경 1M - 100만 원	없음	
단 체 상	3위	현금 50만 원	66기	
	준우승	현금 100만 원	61기	
	우승	현금 200만 원	67기	
	최다 참석 기수상	현금 200만 원	59기	
특별협찬품 시상		연세 심볼 테이블보	이벤트+추첨	
개 인 상		양복 행운권 추첨	49기 박순옥	
	메달리스트	트로피 및 노트북	63기 김영주	
	우승	트로피 및 LCD TV (42" )	61기 이상경	
권병국 홀인원상		벤츠 C class 1대	없음	
참가상		크리스탈글라스 12pcs 홈세트/모자/썸크림	참가자 전원	

## 골프대회 결과 보고 모임

2010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의 결과 보고 모임이 지난 6월 21일 오후 6시 포에버리더스 서초점(서초동 외교센터 12층)에서 열렸다. 회장단 및 골프집행부와 협찬하여 주신 동문님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결과 보고 모임은 박상진 골프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송운택 골프회장은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성원이며 앞으로도 우리 골프회와 동창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골프회의 발전을 위해 오늘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말했다.

김태옥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송운택 골프회장의 열정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골프회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를 보낸다. 연세 AMP 총동창회가 가장 가고 싶은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송운택 골프회장님께서 마련하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참석자 소개가 끝난 후 이상규 골프재무국장의 수지결산 보고가 이어졌다.

총수입은 지난해 대비 약 7천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인 154,800,000원이고 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1억 3백여만 원으로 잔액은 51,228,870원으로 집계되었다. 골프회에서는 “평소 골프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총동창회의 기금 적립에 일조하고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3천만 원을 총동창회에 기부하였다.” 고 결산 보고를 마쳤다. 이어 박상진 골프총무국장은 “첫 대회를 2005년 용평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배로 치렀는데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골프대회는 1억 8천여만 원의 협찬금·협찬품이 접수되어 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으로 집행부 여러분에

게 큰절을 올린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택 골프회 명예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오늘 참석해 주신 동문들이야말로 연세 AMP 총동창회의 주역인 만큼, 골프회, 총동창회,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고, 김점동 자문위원장은 집행부가 고생이 많았고 어느 대학 못지않은 최고의 명문대학·명문 AMP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67기 김용범 회장은 골프대회를 성대히 잘 이끌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미력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어서 메달리스트 기념패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기념패는 63타로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은 김영주 골프회 부회장에게 수여됐다. 김영주 골프회 부회장은 골프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하였다. 학교의 연강흠 주임교수를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모임은 앞으로도 골프회와 동창회,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자는 각오와 함께 멋지게 마무리되었다.



좌측부터 송운택 골프회장, 김영주 골프회부회장(메달리스트), 김태옥 총동창회장, 연강흠 주임교수

# 125년 역사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연세



## 2010 지방선거에서도 돋보인 연세인들 활약

지난 6월 2일 시행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연세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광역단체장 송영길 인천시장, 임홍철 대전시장,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포함하여, 29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총 76명의 연세인이 '나라의 일꾼'으로 선출되었다.

##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CFA 협회와 파트너십 체결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원장 박상용)은 세계 최고 권위의 금융 관련 자격증 수여 기관인 CFA 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전문적인 실전 교육을 갖춘 금융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 김한중 총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초대회장 선임

김한중 총장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의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김 총장은 6월 8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학생 선수의 교육권 보호를 포함한 대학 스포츠의 개혁을 이끈다.

## 연세대 산학협력 규모 부동의 1위

산학협력단이 2009학년도에 2,369억 원의 운영 수익을 올려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이어 한양대(1,951억 원), 고려대(1,855억 원), 성균관대(1,415억 원), 포스텍(1,358억 원) 순으로 우리 대학교는 다른 대학들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 연세대, 아시아 대학 순위 19위

우리 대학교가 아시아 대학 순위 19위, 국내 순위 4위를 기록했다. 학계 평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25위에서 19위로 6계단 상승함으로써 국내 대학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국내 사립종합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 ‘아시아 대학의 새로운 모습’ 국제 콘퍼런스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5월 7일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 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 대학교 김한중 총장, 영국 런던대 SOAS 폴 웨블리 학장, 강경화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 알마 라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장 등 세계 대학 총장들과 기업 및 국제기구의 글로벌 리더 등이 함께했으며, 150여 명이 참가했다.

## 연세 창립 125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이어져

1885년 광혜원 · 제중원에서 시작한 연세대학교가 125돌을 맞았다. 선교, 의료, 연구, 교육 및 봉사를 통해 근현대 학문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연세의 125년, 걸음걸음마다 처음이었고, 그 발자국마다 최고를 기록했던 125년 역사를 기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5월을 정점으로 연중 이어지고 있다.



## Section 2

# On the Cover

Theme Story 1	내가 만드는 인생 지침서, 자서전 쓰기	46
Dissertation	69기 최우수 논문 수상작 '미래 자동차 기술'	50
Theme Story 2	초심 유효기간을 두 배로! 초심 유지의 조건	54
Book Review	책 속에 숨겨진 성공을 찾다	58

## 내가 만드는 인생 지침서, 자서전 쓰기

'나는 지금 제대로 사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부쩍 한다면 삶의 지표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럴 때는 자서전을 써 보자. 삶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갖는 동안 자신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 살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도출된 결론은 인생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챗바퀴 돌듯 짝 짜인 일상. 우리는 빨리빨리 살아가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등 정작 중요한 가치들은 뒷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명심하자. 성공하는 사람은 시계보다 나침반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을.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서전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고 심기일전하는 데 효과적인 인생 나침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이 무엇인지, 그 위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매우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등등 그동안의 삶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 등 인생 전반의 계획이 잡힐 것이다. 일단 자신을 알아야 인생의 전략도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서전은 살아온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자서전이라고 하면 보통 위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글재주가 좋거나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거창할 거 없다. 우리는 자신이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의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으며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 마찬가지로 직접 자서전을 써 보면 자기 삶의 실질적인 방향타를 찾을 수 있다. ‘뭘 별거 있냐?’ ‘쓸 만한 내용도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일기를 읽어본 적 있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것처럼 생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걸 싫어하게 됐구나.’ 읽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을 때의 느낌이란.

## 자서전, 위기에 빛을 발한다

자서전을 써 보면 자신의 신념과 과거의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 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정신 기능이 활발해진다. 이는 독창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심리 발달의 과정을 알게 하기도 한다. 자서전의 이러한 효과 때문에 최근 정신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자서전 쓰기를 권하기도 한다.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화병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근원을 찾아내고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해지거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위기의 순간에 자서전의 숨은 힘은 진가를 발휘한다.

## 하루에 원고지 3장씩, 솔직하게 담담하게

자서전을 쓰려고 해도 시간상 여유가 없다, 특히 글 쓰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변명’ 일 것이다. 사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모두 기록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면 대략적인 일정이 잡힐 것이니 지레 겁먹지 말자.

〈나를 기록하라〉의 저자 한혜수 씨는 “하루에 원고지 3장 쓸 시간을 낸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1년 안에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반추할 수 있다.”며 “하루에 원고지 3장이면 1년 안에 1,000장, 책 한 권 분량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매일 잠자기 전 1시간이어도 좋고, 출퇴근 시 차 안에서 짬을 내도 좋다. 월, 수, 금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쓰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하루아침에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은 프로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로 승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글을 짙막하게 넣고 사진으로 승부를 건다든지, 글 대신 목소리를 녹음한다든지 말이다. 무엇보다 자서전에서는 글을 ‘잘’ 쓰기보다 ‘정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쓰기가 서투러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면 좋은 자서전을 만들 수 있다.

### Part 1.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자

자서전, 그냥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면 될까? 그러기에는 너무 방대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서전을 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그다음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이며 무슨 내용을 넣을 것인지 결정하자.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인가** |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 출산, 대학, 입학, 취직, 유학, 결혼 등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적자. 또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요약한다.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 어릴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까지 적는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은 무엇이며 그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와 그 일을 하면서 당신의 직업관에 변화는 없었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도 간단히 생각하자. 물론 지금의 직업을 가지기 전에 했던 일과 앞으로 해 보고 싶은 일도 덧붙인다.

**건강 상태는 어떤가** |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앓아본 경험, 그때 자신의 생활은 어땠는지, 지금은 완치되었는지 적는다. 그리고 자기 건강 중 취약점이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체질 변화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친구들은 어떤가** | 당신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과 어떻게 만나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그 친구는 어떤 존재이며 당신은 그 친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서술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도 좋다. 행복했던 추억, 다뤘던 기억, 도움을 받고 주었던 일 등.

### Part 2. 자신을 재정비하자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는 동안, 어느새 당신이 바라던 성공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며 바쁘게만 살았다면,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뚜렷한 목표를 정하라** |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자. 목표가 뚜렷할수록 그 목표로 향하는 길도 선명하게 보인다. 목표를 이루고자 세부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것, 더불어 그 성취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시작하라** |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에도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해야 하고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선택에서 판단은 신중하되 실천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과감해야 한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자신의 실천 속도를 맞춰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능수능란하게 다뤄라** |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곤 했던가. 물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정된 시간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한정된 시간을 늘리려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초 분도 나눠 활용하는 등 철저한 시간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좋은 습관을 길러라** | 성공적인 미래 관리는 좋은 습관의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의 좋은 습관은 미래 관리의 기본이다. 창조적 생각과 빠른 결정, 기록하는 습관도 미래를 관리하는 사람의 기본 습관이다.

### Tip. 자서전 쓰기의 길잡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내 인생의 자서전 쓰는 법」 린다 스펜스 저 | 고즈윈 펴냄 - 지나온 삶의 기억을 일깨우는 480여 개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서전을 써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책. 막상 자신의 삶을 글로 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자는 십여 년간 세대별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솔직한 사례를 모아 실제 자서전 쓰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소중한 기억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나를 기록하라.’**

「나를 기록하라」 한혜수 저 |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 이 책은 평범한 당신과 당신의 친구, 가족,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스쳐 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삶을 글로 남길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단지 공허한 외침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자서전 형식을 벗어나 사진, 그림, 소설, 뉴스나 시나리오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서전 쓰기를 말한다.

**‘정말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내가 쓰는 나의 책」 학습생활연구회 저 | 박영률출판사 펴냄 - “내가 쓰는 나의 책”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써넣을 수 있는 책이다. 무작정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은 나, 가족, 친구, 세계, 학교생활, 사랑, 일 등의 7개 영역에 대해 114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하나 답해가는 가운데 나만의 자서전을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질문들은 때로는 꼭 집어서, 때로는 미소가 번지도록,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멍하게 하면서 삶의 한순간을 가리키고 있다.



69기 최우수 논문 수상작

# 미래 자동차 기술

## 한국자동차 산업을 향한 도전과 기회

글\_69기 윤석환 동문(주)대우인터내셔널 자동차부품본부 전무



### 1. 도입문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역사부터 현재 여건과 미래 자동차 기술의 주요한 흐름을 다루면서, 우리 경제가 극복할 과제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주어진 위험 및 기회를 점검했다.

### 2. 자동차 기술의 발달

#### 1) 자동차의 역사

자동차 기술과 산업구조는 시대 배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19세기 후반, 다임러와 벤츠에 의해 휘발유 자동차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동 기술이 시도되던 Veteran era 이후 자동차 구조의 개념 및 표준화가 정립되고, 포드 등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Brass era가 있었으며, 이후 대공황 전까지 이어진 Vintage era는 편의성이 강조된 고급 자동차의 출시 및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였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자동차 업체들은

경제공황을 겪으며 상호 인수 합병되며 규모의 합리화를 이루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포드의 사륜구동 등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됐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소형차 개발에 집중했지만, 미국은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크고 강한 미국식 자동차를 생산하며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은 생산원가, 연비 향상 기술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경기 호황기인 8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한 글로벌 생산 개념이 도래하였다. 90년대 이후 컴퓨터, 전자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편의, 지능화가 진행되고 동시에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고 연비 또는 대체 에너지 차량이 등장했다.

#### 2) 자동차 시장, 구조 및 환경

그림2와 같이, 2009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약 61백만 대 수준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약 13.5%가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0년에는 판매량이 약 89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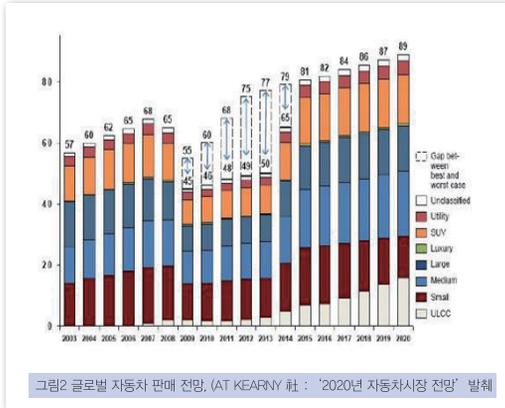


그림2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 (AT KEARNY社 : '2020년 자동차시장 전망' 발췌)

이와 같은 성장세는 완성차 업체 주도로 진행되던 20세기와 달리, 친환경, 고 편의 및 안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부품 업체의 상호 협조 아래 해당 업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세기 급격한 차량 증가로 대기오염, 화석연료 고갈과 자동차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데 각 국가와 지역별로 EURO, 교토의 정서 등 법률적 규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개발, 고 연비 디젤차 등을 들 수 있다.

### 3. 미래 자동차

#### 1) 미래의 환경

미래 환경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구조와 모습을 결정짓는 주요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쓰비시 연구소는 2010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세계 탄산가스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예상량이 연간 13억 톤에 이르리라고 했다. 87년 대비 약 57% 증가한 수치로서 온실효과 등 환경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내연기관에 의존하던 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다음으로, 인류 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다. 이는 편의와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량생산을 선호하는 완성차 업체의 투자비 등에 부담을 주지만, 전문 부품 개발 업체의 역할은 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미래 자동차 주요 기술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Environmentally Efficient’와 ‘User Friendly Connectivity’로 정의된다. 향후 20년간 기존 내연기관 차량, 신에너지 차량, 고 연비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 차량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내연기관 차량은 순수 전기에너지나 바이오 연료, 수소 연료 전지 차량으로 대체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재 변화도 기대된다. 경량화 소재와 ECO material이라는 범주하에, 폐차의 Recycling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부품의 Cd, Pb, Cr 등 유해중금속은 친환경 소재로 교체되거나 비금속 나노복합재료 등이 등장해 차의 경량화, 친환경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기술 및 IT를 바탕으로 한 고 편의성, 고 안정성 자동차 등장도 예상된다. 2015년까지 차량 부품 중 전자 부품이 차지할 비율은 40%로 예상되며 이후 자동차 신기술의 90% 이상이 전기, 전자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무실, 쇼핑 공간, 각종 Media Communication이 가능한 Smart Car를 실현케 할 것이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미래의 교통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 자동차 및 도로망 간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현해, 차량 흐름 효율 극대화, 안전화, 물류 최적화를 달성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는 미래 자동차에 적용될 대표 기술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 4. 기술 실현을 위한 극복 과제

기술들이 실현되려면 기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 및 제반 여건을 극복해야 한다. 예컨대 텔레매틱스 환경을 실현하려면 수많은 신규 도로망과 인프라 구축 등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정부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대안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완전한 인프라 구축 시기를 지체시킬 수 있다.

둘째는 매우 다양해진 소비자층의 욕구이다. 과거 유사한 성향의 광범위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해온 자동차 업체는 향후 지속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 연령과 기호가 다양한 고객층을 상대로 다양한 특성의 자동차를 공급해야 할 처지다. 이는 제품의 다품종 소량화를 유발해 역설적으로 소규모 전문화된 자동차 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결국 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예산 부족 등의 사정으로 기반 시설 투자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한 업체 및 계층의 견제다.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국가 간 협정 및 규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들의 소극적인 대처는 전체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5. 맺음말: 한국 자동차 산업을 향한 도전과 기회

이미 선진국의 주요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R&D 및 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미래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상당한 기술 인프라 구축, 원천 기술 확보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핵심 기술에서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현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 선진화된 IT 기술 및 인프라 등은 미래 핵심 기술 실현에 바탕이 되는데, 국가와 기업 간의 적극적인 전략적 협조와 투자, 결과물에 대한 특허 및 기술 표준화를 이룬다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100여 년의 자동차 역사보다 채 50년도 안 된 한국이 치열해지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며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받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또 다른 변화와 혁신을 원하므로 경쟁에서 후발주자를 넘어 시장을 주도해 나갈 때만 미래 자동차 업계에서 생존하고 국가의 경제력을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초심 유효기간을 두 배로! 초심 유지의 조건

2010년도 절반이 지났다. 올해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마음과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다.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당신, 처음 가진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 Part 1. 처음으로 세웠던 마음, 초심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기 상황에 부닥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래,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출발점에 대해 일깨우고자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라.

다산복스에서 펴낸 「초심」이라는 책에는 많은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이 ‘자신이 처음 가진 마음’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오는 열정이라고 말한다. 목표를 달성해 성공하려면 초심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해야 한다. 초심을 유지하려면 일단 하기 싫은 감정부터 극복해야 한다. 하기 싫은 감정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나타나는 온갖 핑계와 변명이 의욕을 꺾어 놓는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 쉽게 ‘포기’를 떠올리고 이내 좌절하게 된다. 이런 감정의 주체는 자신이다. 날씨, 몸의 이상 상태 등 의도치 않았던 외적인 상황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요소지만 순간의 감정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만 두고 싶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고 초심을 유지한다면 계획한 일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초심 잡는 마인드 컨트롤 도서

#### 「마음의 창조학 마인드 컨트롤」 호세 실바 지음 | 정신세계사 펴냄

미국의 호세 실바 박사가 22년간의 연구 끝에 창안한 실바 마인드 컨트롤은 의식 심층에 잠겨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활용하여 마음속에 그린 성공, 건강, 행복의 심상을 그대로 실현하게 하는 역동적인 명상법이다. 실바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하면 잊어버린 기억을 쉽게 되살리고, 통증을 이겨내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또, 스트레스, 우울증,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자기 혁신의 7가지 마인드 컨트롤」 정철화 지음 | 기한재 펴냄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려면 개인도 변해야 한다. 특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 책은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활동 에너지로 전환해,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기쁨을 느끼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이지드로 페르낭데 지음 | 토네이도 펴냄

이 책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소한 실패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시련과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는 빛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결정적인 순간,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다 실패와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의 용기를 얻게 해 주는 10단계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제시한다.

## Part 2. 초심 목표 다시 세우기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으면 목표 달성이 힘들어진다. 반면 목표 달성에 치중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초심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까닭은 ‘지나친 기대’ 때문이다. 쉽게 이룰 수 없어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문제 될 게 없지만, 목표가 너무 멀면 의욕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끝없는 가능성에 가득 찬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시 해야 한다. 즉, 기대는 적당히 하고 현실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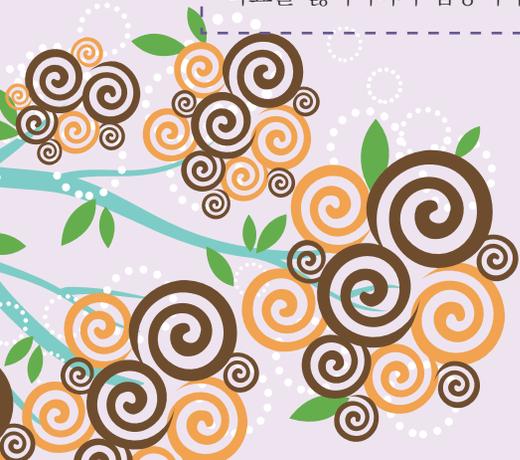
‘날마다 달리기하기’ 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최종 목표를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하겠다.’ 라는 식으로 세우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무작정 달리는 것만으로는 목표에 다가간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모눈종이를 준비해서 5km를 달렸다면 다섯 칸, 2km 달렸다면 두 칸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달린 거리가 눈에 보이게 된다. 달리를 계속하면 칠한 넓이가 넓어지면서 스스로 독려가 되고 아울러 “오늘은 한 칸이라도 더 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자.” 라며 칠하기 자체가 초심을 상기하는 계기가 된다.

###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의 세 가지 열쇠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 목표 설정으로 변화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변화없이 발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락권(comfort zone)에 머물러 있으면 우선은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주는 잠재력 개발의 가장 큰 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변화는 두려운 것일지라도 목표 설정이 동기가 된다면 오히려 신이 난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공포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발전의 길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자기의 탁월한 영역을 알아낸다** | 사람마다 제각기 탁월한 분야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뒤떨어져도 다른 분야에서는 월등한 데가 있다. 월등한 분야를 발견하여 전력을 다해 개발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탁월한 분야를 발견하기 위해 관심이 가고 흥미가 있으며 쉽게 몰두하게 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알아낸다.

**목표를 위해 선택하고 집중한다** |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목표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 Part 3. 멈추지 않는 습관으로 초심을 유지하자

초심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실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습관을 들이는 것은 초심을 유지하고 우리의 목표를 실행하는 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려면 시간과 의욕이 필요하다. 시간이 있더라도 의욕이 없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기 쉬우며, 의욕이 있더라도 시간이 없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된다.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 번 습관을 들이면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초심 유효기간을 2배로 늘리는 3가지 습관

**할 일을 적어서 상기하자** |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써서 침대 모서리에 두거나 냉장고에 붙여 둔다. 눈에 띄는 곳에 해야 할 일이 쓰여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날마다 하는 일이니까 하나 하나 써 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계속 되는 비탈길을 되도록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집중 훈련을 하라** | 집중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중간 목표를 정한다. 모든 중간 목표는 중도에 주의 산만해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한 생각들을 메모하고 곧장 원래의 과제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중간 목표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중간 목표를 보다 큰 것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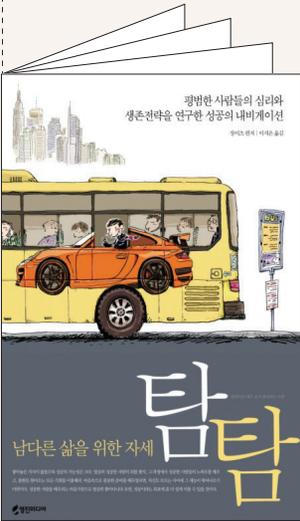
**예외를 인정하라** | 아무리 스케줄을 그럴듯하게 세워도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윗몸 일으키기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늦잠을 자서 평소에 하던 윗몸 일으키기를 할 틈도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서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예외와 마주치면 기분이 나빠진다. 늘 하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는 기회이기도 하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없었던 날은 새삼 윗몸 일으키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평상시의 초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습관을 실천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무엇을 얻는지 관찰하도록 하자. 여유 있는 마음가짐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 눈뜨게 할 수 있다.



## 책 속에 숨겨진 성공을 찾다

따라 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만 같은, 현실성 없는 나열 일색인 책들에게 지치고 질려버렸다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자. 성공을 위한 비법이 숨겨진 책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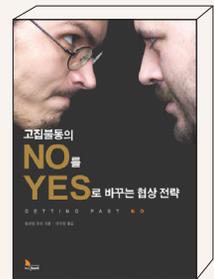
### 탐탐: 남다른 삶을 위한 자세

이 책은 목표를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고질적인 습관, 자세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다. 그리고 ‘왜 나만 평범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친절히 그 이유를 짚어준다. 또한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인들을 귀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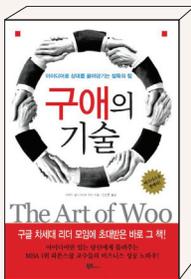
장いち 지음 / 영진미디어 펴냄

### 고집불통의 NO를 YES로 바꾸는 협상 전략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고집불통과의 협상에서 자기와 상대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협상의 5단계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능이 시키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다. 주장하고 싶을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화내며 맞받아치고 싶을 때 시간을 벌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시간을 벌라고 권고한다.



윌리엄 유리 지음 / 이수정 옮김 / 지식노마드 펴냄



### 구애의 기술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유명한 와튼스쿨에서 강의하며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해 온 두 저자가 전하는 설득의 기술을 담은 책, ‘구애의 기술’. 이 책은 단순한 협상이나 화술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독특한 설득의 기술로서 구애 프로세스 4단계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아이디어를 납득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고도로 체계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들이 담겨 있다.

리처드 책 · 마리오 무사 지음 / 북섬 펴냄



Section 3

# Trend

Trend Report	급변하는 시대, 인맥 관리도 디지털화	60
Healthy Life	자유와 낭만의 외국 여행, 건강도 챙기셨나요	62
Travel 1	언제 봐도 즐거운 연세대학교 AMP #66 강력 멤버들	64
Travel 2	낙동강 따라 흐르는 조선 성리학의 발자취	66
Winning Habit	첫 만남, 웃는 얼굴로 승부하라	72
Successful Keyword	말은 힘이다, 힘있는 자들의 화법 엿보기	74

## 급변하는 시대, 인맥 관리도 디지털화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증명하듯 요즘 너 나 할 것 없이 인맥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었다. 최근 한 인맥 만들기 카페는 회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니 인맥 개발의 열풍을 가늠할 수 있다. 이제 인맥이 경쟁력이 된 시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인맥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공 요소다. 사업가는 물론 구직자들에게도 인맥은 성공의 필수 키워드로 작용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물론 어떤 일이든 개인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인맥이 더해지면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격이 된다.

### 인맥 분석과 활용이 경쟁력을 높인다

인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인터넷을 통한 인맥 쌓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환경과 통신 기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통신 환경의 발달로 과거, 종이 명함 정리와 안부 전화로 손꼽히던 아날로그 시대의 인맥 관리 방식이 온라인 명함과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등을 활용한 디지털 인맥 관리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맥 관리 사이트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명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인맥을 관리토록 한다. 또한 직장과 업무 경력 외에도 자신이 가진 특기, 관심사, 보유 자격증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정된 종이에 담을 수 없는 내용까지 기록할 수 있어 인맥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온라인 인맥 관리의 또 다른 특징은 인맥 형성을 위한 ‘GPS’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과거 혈연, 지연, 학연 위주로 형성된 인맥이 끊어지기 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인맥을 찾아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동일 업·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도 인맥을 형성하여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양광모 휴먼네트워크연구소 소장은 “요즘에는 약한 연결 관계가 주목받는다. 아주 친한 것보다 연결 고리가 약한 이들 사이에서의 정보 흐름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약한 연결에 속하는 디지털 인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 인맥인 만큼 인맥 간의 특성이 달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한 연결에 묶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배경에 속하므로 정보도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맥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인맥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관리하는 추세” 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편한 인맥 관리 서비스로는 요즘 주목받는 ‘이메일+SNS(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 접목 서비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이메일에만 접속하면 지인들의 트위터(마이크로 블로그), 플리커(사진 공유 서비스)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눈에 근황을 살필 수 있다. 현재 구글 ‘버즈’, 야후 ‘갤럭시 메일’ 등 대형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 Tip. 인맥 관리 사이트

#### 링크나우 | [www.Linknow.kr](http://www.Linknow.kr)

‘링크나우’는 1촌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달리, 3촌(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찾을 수 있는 인맥 검색 엔진을 도입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게 한다. 링크나우의 가입자는 상대의 경력, 전문 분야, 자기소개, 학력 등을 보고 서로 인맥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가 연결에 동의하면 서로 연락처를 볼 수 있으며 인맥도 공유할 수 있다.

#### 에이전트왕 | [www.agentwang.com](http://www.agentwang.com)

인맥 관리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위해 태그와 주소록을 활용하는 온라인 SNS 서비스다. 일일이 주소를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 PDA, MS 아웃룩, 네이트 온, MSN, Gmail, 엑셀 파일 등의 기존 주소록을 간편하게 가져와 활용할 수 있고, 태그 기반으로 정리된 주소록은 각종 이벤트(경조사, 모임, 워크숍, 회의 등)를 개최하고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이메일과 SMS를 통해 자신의 소식을 지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인크루트 인맥 | [nugu.incruit.com](http://nugu.incruit.com)

‘인크루트 인맥’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맥 관리와 커리어 히스토리를 통한 경력 관리를 통해 사회인들을 위한 자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심사가 같거나 동종업계 종사자, 전문가, 동창, 동료 등을 검색하여 인맥을 맺고 인맥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

# 자유와 낭만의 외국 여행, 건강도 챙기셨나요

‘여름휴가’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바로 여행. 그중에서도 외국 여행은 여행의 자유를 넘어 낯선 곳에 대한 설렘과 낭만을 선물한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구경거리와 신나는 경험도 몸이 건강해야 즐길 수 있는 법. 여행 전, 건강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여 몸도 마음도 자유로운 여름휴가를 만끽해 보자.

자료 \_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 여행지 건강 정보, 미리 알아 두세요!

최근 외국 여행자 수가 늘면서 외국 여행의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여행 지역이나 여행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지 풍토병이나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공공 의료 기관이나 여행 의학 클리닉을 통해 위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감염성 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처방한다. 그뿐만 아니라 식수와 음식물에 대한 관리, 사고 위험을 줄이는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외국 여행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등을 통해 외국 여행 건강 수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시차 적응에는 숙면이 보약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면 출발지인 한국과 시간이 달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몸의 생체 시계가 새 리듬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차로 말미암은 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만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여행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좋다. 시차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신경을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는 흥차,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이 든 음료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 무작정 선택은 금물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중 하나가 선택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안가 백사장에서 맞는 강렬한 햇볕에 일광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외선에 노출된 지 8시간 정도 지나면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게 된다. 일단 피부가 이상하다 싶으면 찬물 찜질을 하고 심하면 화상 연고를 발라야 한다. 반드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는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는 것을 잊지 말자.

## 이것만은 꼭 챙기자, 외국 여행 전 필수 체크

스트레스를 풀고자 외국 여행을 떠났다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돌아올 때가 있다. 알찬 추억을 만들기 위해 외국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 하도록 하자.

**01 풍토병 예방접종 |** 출발 전 예방접종을 확인한다. 예방접종은 현지 풍토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출발 1~2개월 전 의사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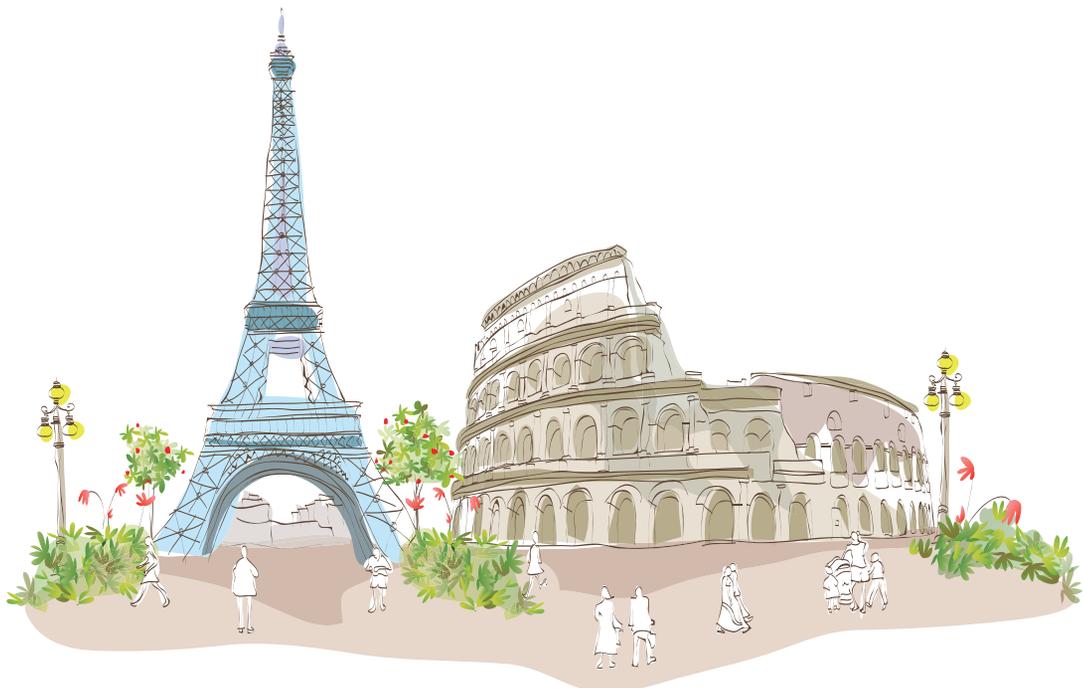
**02 말라리아 예방과 모기 주의 |**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여행자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지역과 기간에 따라 의사에게 예방약을 처방받고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소매가 긴 옷, 방충제 등을 준비한다.

**03 복용 약, 질병 경과를 영문으로 기록 |** 평소 약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출발 전 반드시 진료를 받고 약물 이름과 질병 경과에 대한 기록을 영문으로 만들어 여권에 보관한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기본적인 상비약과 위생 용품을 준비한다.

**04 여행 전 휴식 취하기 |** 여행 중 멀미나 시차 부적응, 설사 등으로 몸 상태가 나쁘면 여행이 고생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부터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 먹을 것만 조심해도 여행 걱정 뚝!

열대 지방이나 위생 수준이 낮은 지역을 여행할 때는 물과 음식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음식을 날로 먹는 것을 피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다. 여행 시 설사가 잦은 사람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항생제나 지사제를 미리 챙긴다. 한편 질병에는 잠복 기간이 있으므로 귀국 후에도 한 달 이내에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에게 검사받도록 한다. 모처럼의 외국 나들이를 즐겁고 보람 있게 마무리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언제 봐도 즐거운 연세대학교 AMP #66 강력 멤버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66기는 이주섭 회장님 이하 총 47명의 핵심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서로 서먹서먹했던 것이 엇그제 일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66기 멤버들은 더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기수들이 수료식 후에는 잘 뭉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66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인 것 같다.

66기 멤버들은 하나 같이 웃음 많고 좋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마치 서로 뭉치기만 하여도 웃음이 넘치는 오래된 친구 모임 같은 느낌이 든다.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주기에 66기 내부의 어떤 모임이든 활성화가 된다.

66기 모임은 ‘골프회’, ‘강남포럼’, ‘여의도포럼’, ‘대사모’ 등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자랑거리는 아무래도 매월 선착순 마감일 될 정도로 높은 참석률을 자랑하는 골프 월례회와 동기분들의 안사람 되시는 사모님들의 모임 ‘대사모’ 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골프 월례회는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다. 매월 4개 팀이 모여 트로피 및 상품 증정식도 가지고 있으며, 참석자는 모두 상을 받아갈 수 있는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모든 전체적인 모임을 이주섭 회장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골프회 회장님이신 (주)넥센의 황인천 전무님과 골프국장 젊은 오빠 한동철 형님의 정열로 66기 골프회는 항상 즐겁다. 나는 구력도 짧고 연습도 게을러 매번 거의 꼴찌에 백돌이지만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심 있는 실력으로 웃어주며 함께 해 주시는 휴스존 김재숙 대표님, 아이넷스쿨 복진환 대표님이 계셔서 즐겁다. 복진환 대표님은 골프 타수는 줄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들보다 골프를 즐겁게 치시는 능력(?)과 캐디 언니들을 웃다 쓰러지게 만드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또한 매번 메달리스트에 우승 강력 후보이신 한승기(한성마그네틱), 한동철 두 한 씨 형님의 자발적인 양보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다른 많은 분들의 수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7~8월 즈음에는 ‘66기 회장배 골프대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약

글\_66기 김민수(태원비엠씨(주) 대표이사)





10개 팀이 참석한다. 이런 행사는 여러 동기분들의 스폰서 십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기수 분들은 66기 발전을 위한 스폰에 매우 적극적이다. 서로를 위해 주고 아껴주는 이러한 분위기는 회장님, 부회장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젊은 국장들(나를 포함한, 한동철, 김광수, 윤태훈 형님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며, 젊은 국장들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 동기분들이 따듯하게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66기 파워의 근원인 '대사모' (대단한 사모님들의 모임의 준말이다. ^^) 모임은 2개월에 1회 실시되고 있는데 함께 점심식사, 골프 모임, 여행을 같이 하기도 한다. 사모님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66기는 사모님들의 모임에 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협찬에 앞장서 주시기도 한다. 66기 사모님들은 한결같이 '미'와 '지'를 겸비하고 계셔서 안으로는 '내조의 여왕' 이시고 밖에서는 함께 즐기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시다. 우리 66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웃으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이상으로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우리 66기는 서로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로 한 명 한 명이 의미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큰 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들어올 우리의 후배 기수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각 기수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그 원동력이 연세대학교 AMP 총동창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66기 파이팅!! ^^



## 낙동강 따라 흐르는 조선 성리학의 발자취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는 「택리지」의 표현은 바로 낙동강 줄기 따라 인물이 나왔다는 말과도 같다. 길재는 선산에서, 김종직과 아버지 김숙자는 밀양에서, 김굉필은 달성에서, 이황과 그의 제자 유성용·김성일 등 모두가 낙동강에 살았기 때문이다.

글 · 사진 \_ 이흥재 | 여행작가, 미술사학자

위에서 내려다 본 회룡포





## 도동서원

### 조선의 사상과 정신, 유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도동서원은 엄격한 도학자 한훤당 김굉필을 기념하여 창건되었다. 그는 도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 연산군의 사약을 달게 받은 전형적인 사림으로 추앙받는다. 한훤당이라는 서재를 짓고 학문에 열중하던 중인근 함양 군수였던 김종직을 만나 학문을 배운 것이 바로 운명의 결정적 사건이다. 김종직의 수제자가 되어 ‘정몽주 - 길재 - 김종직 - 김굉필’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맥을 잇고 ‘조광조’라는 제자를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정통 사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에서 도동(道東)서원으로 사액(賜額)되었다.

도동서원은 도산서원, 소수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5대 서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서원이다. 조선 시대 유교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성리학의 중용을 담은 곳

도동서원의 위치는 마치 절집처럼 도심에서 푹 떨어진 산속 강가에 있다. 서원에서 학문을 익히며 수양하는 것은 절에서 스님들이 참선하며 수행하는 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원의 위치는 공통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도동서원은 조선조 성리학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모든 건축적 규범과 미학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동서원은 직선의 중심축 위에 수월루 - 환주문 - 중정당 - 내삼문 - 사당이 배열되어 있다. 성리학에서 중용이란 ‘치우치지 않고 바뀌지도 않은 것’으로 모든 행동의 준거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대칭의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유교적 예법은 유독 대칭과 균형을 강조한다.

‘물속 뜬 달’이라는 뜻의 수월루 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환주문이 나온다. 환주문은 주인을 부르는 문이라는 뜻으로 주인이 문 안에 있는 주인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일 수도 있다. 이 문은 도동서원에서 가장 귀엽고 매력있는 건물이다. 좁은





전면 계단 쪽에 맞추어진 듯 좁고, 문도 1.5m로 낮아 갓을 쓴 유생들이 머리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을 정도다.

반면에 중정당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은 기단이다. 기단을 쌓아올린 솜씨는 정성 그 자체다. 똑같은 모양이나 크기가 하나도 없게 다듬은 돌로 쌓아올렸다. 전체 모습은 몬드리안의 추상 작품을 연상케 한다. 기단 중앙에 머리만 내밀고 있는 용 4마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바깥쪽 용들은 여의주를 물었고 안쪽 것들은 물고기를 물고 있다.

### 비슬산 유가사

유가사는 비파와 거문고의 합주가 항상 들린다는 비슬산(비파 비(琵琶), 거문고 슬(瑟)기슬)에 호젓이 자리 잡고 있다. 유가사 입구 오솔길 진입로는 울창한 나무 그늘 사이로 비치는 은은한 햇빛이, 수많은 신도의 발길에 닳아서 반들거리는 바닥 돌에 반사되어 절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유가사 입구의 국사당은 한 칸짜리 양증맞은 건물이고 건물 안에는 '봉청비슬산내국사지신위' 라는 위패 하나 모셔져 있을 뿐이다. 조용히 숲 속에 얽전히 서 있는 국사당 단청도 주변의 붉은 소나무 줄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남평 문 씨 세거지

옛집이 많이 남아 있는 전통 마을에 가면 대개 빈집이거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광 자원화한다고 새롭게 꾸며놓은 집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상식을 깨트리는 마을이 바로 달성군 화원읍 본리 인흥마을 남평 문 씨 세거지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야~ 잘사는 동네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 정말 살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진다.

동네 안쪽에는 높다란 흙 돌담길이 쪽쪽 뻗어 있다. 마을 첫머리에 수봉정사가 있고 마을 맨 뒤 언저리에 광거당이 있는데, 이곳의 솟을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헛담이 있다. 대문에서 광거당이 바로 보이지 않게 쌓은 담이다. 대문 빗장에는 두 마리 나무 거북의 빗장둔테가 있다. 두 마리의 귀갑에 곤괘, 건괘가 새겨져 음양의 조화와 장수의 기원으로 해석된다.



### 세종대왕 왕자 태실

성주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에는 세종대왕의 왕자들 태실이 있다. 전국에 있는 태실 가운데 가장 많은 태 무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왕실 자손의 태를 봉안한 곳을 태실이라 한다. 나중에 왕위에 오른 왕자의 태실을 태봉이라 하는데, 예부터 태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다루었다. 명당자리에 태를 봉안하면 왕위에 올라 통치를 하는 중에 큰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곳에는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8대군과 10군의 태실 18기와 세손(단종)의 태실 1기가 안장되어 있었다. 주변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누가 보아도 길지라는 느낌이 든다.



세종대왕 왕자태실

### 금오서원

정몽주로부터 학통을 이어받아 조선 시대 사림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야은 길재다. 이 길재가 바로 선산사람이고, 그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 금오서원이다. 고려 말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에게 철퇴를 맞고 숨지자 길재는 즉시 고향 선산으로 낙향해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길러 낸 제자가 밀양에 살던 김숙자와 김종직 부자(父子)다.



금오서원 천주문과 누각

조선 성리학의 정통이 고려말 성리학을 체계화해 이어졌으며, 그 이어짐에서 정몽주 다음이 길재인데, 그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참다운 은자로 일생을 마쳤고, 후진 교육을 통해 성리학 정통이 이어지도록 했다.

### 칠조(七條) 가르침

경북 선산의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금오서원은 발밑을 휘도는 낙동강과 넓게 펼쳐진 들판을 굽어보고 있다. 금오서원 강당에 재미있는 현판이 하나 있는데 칠조(七條)라는 제목의 글이다.

‘창과 벽에 낙서하거나, 책을 망가뜨리거나, 놀면서 공부를 안 하거나, 함께 살며 예의가 없거나, 술이나 음식을 탐하거나, 난잡한 이야기를 하거나, 옷차림이 단정치 않거나, 이 일곱 가지 어긴 자는 왔으면 돌아가고, 아직 오지 않았다면 오지 마라’

엄격하고 근엄했을 옛날 선비들이나 요즘 학생들이나 모두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친근한 정이 느껴진다. 서원의 강당인 정학당의 측면 여덟 팔자 모양의 합각 면에 기와로 아들자(子)와 큰 대(大)를 새겨 놓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송림사 전탑

##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면선 구림리, 푸근하고 편안한 평지에 있는 송림사에는 2층 전탑이 있다. 전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탑으로 우리나라에는 다섯 기의 전탑이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1,500여 기의 탑 대부분이 석탑이고, 전탑은 오로지 다섯 기. 하나는 여주 신륵사에, 안동 지방에 3기, 나머지 하나가 바로 송림사에 있는 전탑이다. 왜 안동 지방에만 전탑이 유행했는지는 아직도 시원한 해답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웅전 현판 글씨는 숙종이 직접 써주었다 한다. 또한 대웅전은 문살도 아주 다양해 가운데 2칸은 빗살문이고 양옆의 두 짝은 소슬꽃 빗살이고, 협칸은 가운데가 소슬 빗살이고 나머지가 빗살문이다. 또 맨 양쪽 끝 퇴칸은 정자살이다. 열두 짝문이 단혀 있을 때 보면 음악의 선율을 느끼게 하는 울동감이 있다. 대웅전 정면 문설주에 태극무늬와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어 품위를 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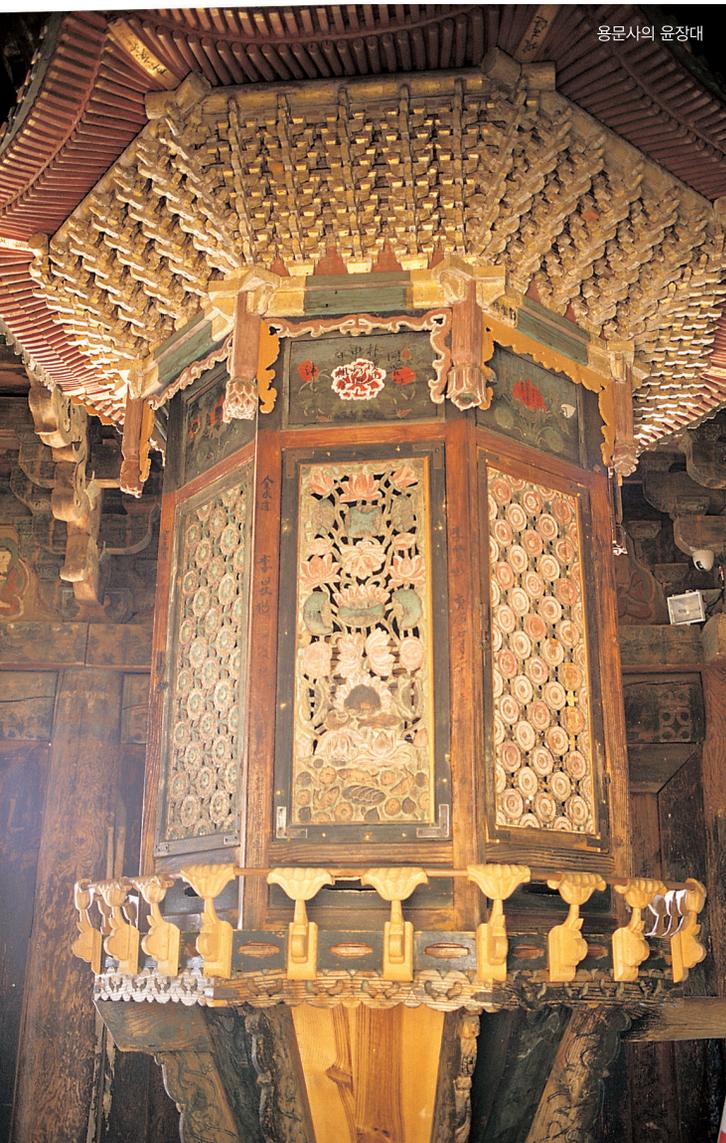
회룡포 모래사장

## 회룡포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가면 마을을 360° 되돌아 흘러나가는 「육지 속 섬마을」이 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의 용이 비상하는 것처럼 휘돌아 간다 하여 회룡포(回龍浦)라 한다. 물도리 모양으로 강이 둥글게 회전하여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성천에는 맑은 강과 넓은 백사장, 마을 곳곳의 울창한 숲이 아름답다. 맞은편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 마을은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다. 새벽녘에 전망대에 올라 차 한 잔하며 해 뜨는 광경을 보면 마치 신선이 노니는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다.

## 초간정

초간정은 용문면 죽림지에 예천 권 씨 권문해가 1582년에 지은 별채 정자이다. 정자에 앉아 있으면 수풀 사이로 흘러가는 맑은 물에 온 마음을 씻어 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곳에 집을 지어 나무와 숲, 들과 강물 모두를 누리는 사람의 것이 되도록 했다. 자연을 자신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에 들어가 자연을 더 깊게 누릴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전통 조경에서는 차경(借景: 빌릴 차, 풍경 경)이라 했는데, 즉 자연 풍광을 빌려다 자기 것으로 놓는다는 것이다.



## 용문사

용문사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소백산 자락에 있다. 그 주변은 신록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누구나 붉은색, 노란색, 흰색의 꽃을 보면 좋아하지만 신록을 보고 반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신록은 눈에 확 띄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사람을 깊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신록이 꽃보다 더 화려하게 피어난 대장전 안에는 윤장대가 있다. 윤장대 안에 경전을 넣어두고 바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연장 방아처럼 돌릴 수 있게 되어, 윤장대를 돌리면서 예불하는 전경신앙의 귀중한 본보기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용문사에만 있다. 윤장대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서쪽 윤장대가 화려한 꽃 창살임에 반해, 동쪽 것은 단아하고 심플한 빗살무늬여서, 서로 대조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물고기도 연잎도 하도 섬세하고 정교해서 목공예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명품 중 명품임을 저절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첫 만남, 웃는 얼굴로 승부하라

인간관계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첫인상. 첫 만남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주면 더욱 발전된 관계로 연결될 수 있지만 반대로 거부감을 준다면 다음 만남은 단절되고 만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첫인상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일에 대한 열정과 실력은 있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에게 비치는 자신의 표정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_ 정연아 이미지테크 연구소(www.imagetech21.co.kr)

한 사람의 첫인상은 5초 만에 결정된다. 그 중에서 얼굴과 표정, 옷차림 새 등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1~2초, 나머지 3~4초 이내에 목소리와 자세, 태도 등을 통해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불과 몇 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이미지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다.

### 첫 대면, 웃는 표정으로 시작하라

첫인상의 첫 번째 포인트는 표정이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 라는 말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갈 때 화내는 사람은 드물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표정의 핵심은 양 입꼬리가 위로 향하는 웃는 입매에 있다.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라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웃는 표정 짓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평소 연습에 따라 얼마든지 멋진 미소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자.

우선 '입꼬리 올리기 운동'으로 평소에 쓰지 않던 입 주위 근육을 풀어준다. '입꼬리 올리기 운동'은 윗니가 여덟 개 이상 드러나게 입을 벌린 후에 양 검지 끝을 입꼬리에 살짝 대고 약간 위로 당겨 올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단련한 근육은 뇌에서 기억하므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위스키, 와이키키'를 반복해서 소리 내 볼 것을 권한다. 이때 발음이 정확할수록 효과가 좋다. 이런 연습을 통해 웃는 입매를 만들면 눈매도 자연스럽게 웃는 눈매로 바뀐다. 웃는 표정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미소 짓는 습관을 기르는 것임을 염두에 두자.

### 좋은 자세가 대화를 이끈다

웃는 표정으로 첫인상을 좋게 심었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대화하는 자세다. 첫인상은 대인 관계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 짧



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대화라는 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대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대화의 기술에 따라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반대로 대화하는 자세나 태도 등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기 표현법에 대해 알아 두자.

**1. 열린 자세를 취하라** 열린 자세는 여유와 상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무의식적으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자칫 거만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닫힌 자세가 되어 상대의 마음도 닫히게 한다. 대화에 걸맞은 자연스러운 몸짓은 열린 자세와 상통한다. 말을 할 때 양팔과 손을 벌려서 몸짓을 구사하면 의사 전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 상대방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여라**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인 자세는 상대에게 깊은 관심이 있음을 뜻하고 상대를 대화에 몰입하게 한다. 상체를 등반이에 기대어 앉으면 단정해 보이지 않고 불성실해 보인다.

**3. 신체 접촉을 시도하라** 악수하기, 두 손 모아 상대방의 손 잡기, 토닥토닥 어깨 두드리기 등의 신체 접촉은 ‘당신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라는 뜻을 침묵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상황이나 친밀감에 따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4. 시선을 마주쳐라**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실례다. 더구나 시선이 불안정하면 산만한 느낌을 주거나 능력과 신뢰감이 떨어져 보인다. 그렇다고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뚫어 쳐라 쳐다봐서도 안 된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상대의 미간을 응시하다가 테이블 위에 시선을 두고 다시 상대의 미간을 보는 식으로 반복하면 최상이다.

**5. 고개를 끄덕여라**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이해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에 따라 각도를 달리하면 좋다. 대화가 무겁고 깊이 있을수록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가벼운 대화라면 작게 자주 끄덕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 말은 힘이다, 힘 있는 자들의 화법 엿보기

사람과 사람에게 소통의 다리가 되는 말. 그러나 말은 가끔 진심과 진심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도록 일류 기수(騎手)처럼 자유자재로 말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말로써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타인을 알게 된다.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말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잇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말 잘하기란 쉽지 않다. 말에도 기술이 필요한 탓이다. 한편, 적절한 대화 기술은 비즈니스맨의 필수 능력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걱정하진 말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달변가는 없다. 역사적 달변가, 말로써 인간과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늘 말 잘하는 법에 대해 고심했고 말발을 연마했다. 오늘, 그들이 구사한 필살기를 전수받자.

### 대화의 기본 필살기

**온몸으로 들어라** | 타인의 호감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의 말을 성의껏 듣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듣는다면 무성의해 보일 수 있다. 적당한 반응을 보이자. 내용에 따라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다양한 제스처를 보이자. 이러한 관심 어린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자** | 화제가 없으면 말하기가 어렵다. 우선 상대방과 공통 화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하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날씨 얘기를 꺼내는 것도 날씨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손쉬운 화젯거리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해 관심을 둔다** | 상대가 좋아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상대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말이 잘 풀려 나오기 때문이다.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려면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장구쳐라** | 공감의 표시는 상대의 마음을 연다. 그러나 심해지면 아부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주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맞장구는 감정을 넣어서 짧게 한다. ‘그렇군요’ ‘나도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응’ 등의 말로 흥미 있음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당신을 아군으로 인식한다.





## Section 4

# AMP People

Interview 2	53기 이종화 고문, 연세 AMP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	76
Interview 3	65기 박재현 동문,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강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다	78
Alumni Movement 1	4천여 동문의 식구가 된 연세 AMP 67기, 68기	80
Alumni Movement 2	함께 가는 화합의 길을 걷다, 69기 수료	82
Alumni Movement 3	동문 동정	84
Notice Board 2	동문 게시판	88
Information	동창회 수익 사업 안내	95

## 연세 AMP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

한국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53기 이종화 고문



▲ 좌측부터 박상용 회장 / 이종화 고문 / 송윤택 골프회장

### 경력

- 1997. 2 신공항레이콘(주) 대표이사 회장
- 1997. 2 인천경영자협회 수석 부회장
- 2001. 3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제11기 회장
- 2003. 8 대중상영화제 조직위원
- 2005. 6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 지도위원
- 2005.12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 및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이사
- 2006. 2 인천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장
- 2006. 3 중국 칭하 대학 한국 캠퍼스 명예 부원장 임명
- 2006. 2 인천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장
- 2006. 3 중국 칭하 대학 한국 캠퍼스 명예 부원장 임명
- 2006. 4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 부총재
- 2006. 8 (주)환경안전공사(환경안전신문) 대표이사 회장
- 2008. 1 조지워싱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제 WCF 정1-039호)
- 2008. 1 제17대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회 자문위원
- 2008. 8 현 한국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칠순 챙겨준 인연 고마워” 9년째 자신의 생일날 기부

이종화 고문은 2002년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연세 AMP와 인연을 맺었다. 8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연세 AMP와 이종화 고문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요즘도 각종 동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문회에 활력을 준다. 최근에는 연세대학교에 8년 동안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이 화제가 되어 조선일보 7월 8일 자 기사로 소개되는 등 연세 AMP 동문으로서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세 AMP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다.

현재 70이 훌쩍 넘은 고령에도 한국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재직, 내외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연세 AMP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종화 고문의 앞날에 건강과 지속적으로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연세대 대학원 출신 이종화 씨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직원들은 해마다 7월 7일이 다가오면 ‘그분’ 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새해 달력이 나오면 7월 7일을 찾아 동그라미를 쳐둔다. 자기 생일인 7월 7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한 해 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고 가는 이종화(77) 씨 때문이다.

7일에도 이씨가 찾아왔다. “오셨어요?” 직원들이 인사하자 이씨는 “오늘이 7월 7일이잖아,”라며 웃었다. 그는 이날도 “약소하다.”며 1000만 원을 내놓았다. 박상용 경영대학장은 “그저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할 뿐, 딱히 용도를 지정해 주시지 않아 그때그때 장학금이나 건축기금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9년째 이렇게 기부금을 내놓고 있다. 사정에 따라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놓고 간다. 9년치를 합치면 7500만 원이다. 경영대 직원들은 “적지 않은 돈도 고맙지만, 항상 학교에 관심을 쏟아주는 정성이 너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가 연세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니면서부터다. 당시 이미 칠순으로, 60여 명 학생 중 최고령이었다. 그는 “입학 경쟁률이 3대 1은 됐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합격시켜주더라.”며 “나이가 드니 친구들도 점점 사라지고 해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해 5월 수업차 중국의 기업과 대학을 둘러보러 상하이에 갔을 때다. 교수와 학생들이 얼마 뒤 칠순 생일을 앞둔 그를 위해 ‘깜짝 고회연’을 준비했다. 저녁 자리에서 초 7개를 꽂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최고령임에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수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표시였다.

이씨는 “알려준 적도 없는데 남의 생일 챙겨준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나.”며 “그날 깜짝파티가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그때부터 ‘작은 보답’이 시작됐다. 이씨는 고회연을 위해 자녀들이 모아둔 돈과 사비를 합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고회연은 중국에서의 ‘깜짝 파티’로 대신했다.

그 뒤로도 해마다 생일이 되면 모은 돈을 내놓았다. 이씨는 “요즘도 그때 울컥했던 순간이 가끔 생각난다.”고 했다. 학교 직원들은 “설마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7월만 되면 자연스럽게 기다려진다.”고 했다.

원문\_조선일보 2010년 7월 8일 (이준현 객원기자 heon@chosun.com)

##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강소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다

65기 박재현 동문((주)이브릿지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IT 서비스 및 제휴 마케팅 전문 대행사 (주)이브릿지를 경영하는 박재현 대표(65기)는 인천국제공항 최초 '고객 체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제휴 마케팅'의 성공을 통해 '국내 제휴 마케팅'의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열정'과 '도전'으로 강소기업을 향해 용왕매진하는 박재현 대표를 만났다.



### 인천국제공항에 IT를 심다

'세계 최첨단 IT 공항', '서비스 분야 5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얘기할 때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다.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에 '고객 체험 IT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회사가 바로 (주)이브릿지다.

이브릿지 박재현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으로 인터넷 라운지를 개발했다. 인천국제공항 인터넷 라운지는 첨단 사양의 노트북과 안락하고 청결한 시설 환경,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최고의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 구역 2개소, 탑승동 2개소, 입국장 2개소의 인터넷 라운지를 통해 연간 50만 명이 편리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 인터넷 라운지는 일본 NHK 등 세계 각국의 TV에 공항 명소로 방영되고, 타 외국 공항에 벤치마킹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공항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I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IT 체험관(1기 - 아이리버 퍼스트클래스존, 2기 SKT T-UM Airport)을 유치, 운영함으로써 IT 서비스 기업으로 최첨단 인천국제공항에 기여하고 있다.

### 제휴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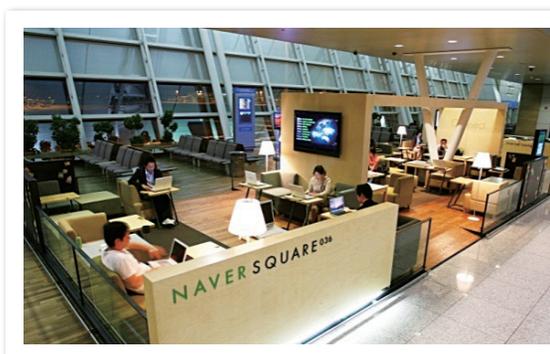
“이브릿지 회사명은 영어로 ‘e-Bridge’ 다. Bridge는 ‘다리’, ‘가교’ 라고 해석되는데 그 말처럼 이브릿지는 마케팅이 필요한 회사들의 장점만 서로 묶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브릿지를 통해 WIN-WIN 할 수 있는 마케팅 TOOL을 개발, 고객사에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브릿지는 마케팅 대행사로서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마케팅 방법을 모색하고 창조한다. 현재 SKT, SK텔링크를 비롯한 통신 회사와 비자카드, 외환은행의 금융권, 인천국제공항 길목인 신공항하이웨이, 코레일 공항 철도, 신라면세점, 위커텔 호텔과 인천공항 관련사와의 활발한 제휴 마케팅을 통해 급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세 AMP 동문만을 위한 연세투어 여행사이트(www.yonseitour.co.kr)를 오픈해서, 신공항하이웨이 무료 통행권, 인천공항 무료 주차권, 신라면세점 상품권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AMP 동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열정

박재현 동문은 중소기업이 성공하고, 강소기업으로 가는 방법을 같이 일하는 직원에서 찾았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직원들이 신이 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어느 대기업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역량과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있다면 강소기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과 독특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연간 정해진 규모의 개인 교육비, 직원 휴양소 운영,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외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은 세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08:30~09:00까지 국내·외 우수한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 격의 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읽고자 하는 책을 회사에서 모두 구매해 줍니다. 도서 감평 대회, 아이디어 경진 대회, 마케팅 성공 사례 발표 대회, 고객 감동 사례 발표 대회 등 다양한 사내 경진 대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열정을 심어 주고 개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 이브릿지 박재현 대표는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먼저 만드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과 힘찬 추진력을 통한 사업 개발, 직원들의 역량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 무한한 발전으로 멋지게 비상하는 그를 기대해 본다.



## 4천여 동문의 식구가 된 67기, 68기

2009년 2월 27일 입학식을 한 55명의 제67기 동문이 20주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7월 17일 수료식을 했고, 지난 1월26일에는 42명의 제68기 동문이 최고경영자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제68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은 본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 밀레니엄홀에서 열렸다. 서길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수료식은 연강흠 주임교수의 학사보고 및 박상용 원장의 수료식사에 이어 손영식 총동창회장의 축사, 제68기 최승석 동문의 답사로 이어졌다.

박상용 원장은 수료식사에서 “오늘 68기 수료생들의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각자 인생에 있어서 멋진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료식을 마친 후 웨스턴 조선히otel 2층 오키드룸에서 사은회 및 수료파티가 열렸다.

제68기 수료식에서 최우수상은 김영부·백홍종 동문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에는 나한홍·두강현·박홍숙·이준희·한인권 동문이, 공로상은 최승석·박홍숙 동문이, 최우수 논문상은 이기호 동문이, 우수 논문상에는 김형건·나한홍·명선복·최영균 동문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날, 배우자 강좌 수료자 32명도 참석하여 수료식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제68기 수료식에는 손영식 총동창회장(현 명예회장), 김태옥 수석 부회장(현 총동창회장), 임향자 상임부회장, 현진왕 상임부회장, 박인서 사무총장, 홍순원·이상규 상임 이사(현 재무부총장), 박상진 골프총무국장 등 총동창회 임원진이 대거 참석하여 4천여 동문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기수	성명	회 사 명	직위	연락처	비고
67	강명희	(주)리치어드밴스	대표이사	02)540-0655	
67	강순이	교보생명(주)	FP명예전문	02)774-6061	
67	고병기	롯데알미늄(주)	상무이사	02)804-6722	
67	구자근	(주)GU기건	대표이사	043)854-8383	
67	권재완	한국씨티은행	본부장	02)3455-2490	
67	권중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031)920-6795~7	
67	김낙찬	(주)현재어학원	이사장	02)595-4177	
67	김승주	삼양레미콘(주)	대표이사	031)544-3600	
67	김대영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02)592-2224	
67	김두호	창신카메라	대표	02)776-5252	
67	김선미	(주)김민지 컬렉션	대표	02)335-3922	
67	김성호	한국 팜 리서치(주)	전무	031)710-6838	
67	김순모	(주)아이퀘스트	대표이사	02)2025-4630	
67	김승탁	현대자동차	전무	02)3464-5030	
67	김용문	융플라트치과그룹	대표원장	02)782-2282	
67	김용범	(주)이씨스	대표이사 회장	02)850-9600	기 회장
67	김윤태	현대캐피탈(주)	이사	02)2167-6879	
67	김정기	(주)두산	상무	02)3670-8100	
67	김정대	유진S&ST	대표이사	02)807-4831-2	
67	김진수	(주)트리니티소프트	대표이사	1644-3055	
67	김하수	Creative Studio TEA	대표	02)564-7557	
67	김현수	상현스포츠	대표	02)470-2368	
67	문무경	(주)웅진플레이도시	대표이사	032)310-8010	
67	박래문	람세스물류(주)	대표이사	02)779-1400	
67	박영조	제일전기통신(주)	대표이사	032)611-0001	
67	박재정	현대택스코(주)	대표이사	032)583-6801	
67	신용완	대주회계법인	상무이사, 공인회계사	02)564-9277-8	
67	안창주	(주)TG삼보서비스	대표이사	031)489-3300	
67	양강현	(주)휴먼소사이머티	대표이사	02)715-2362	
67	엄석중	(주)포르텍코리아	대표이사	02)713-5500	
67	여승주	대한생명보험(주)	상무	02)789-7032	
67	온용현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02)6303-3403	

기수	성명	회 사 명	직위	연락처	비고
67	유석성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032)340-9291	
67	윤만호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02)787-7861	
67	이경하	(주)우암건설	대표이사	032)651-9977	
67	이길호	(주)호암에이아이디자인	대표이사	02)555-3704	
67	이석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02)3771-5023	
67	이윤영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상임감사	02)3466-6103	
67	이종민	태원전기산업(주)	상무이사, 기획실장	02)565-0700	
67	이진욱	해브앤비(주)	대표이사	02)3462-9052	
67	이희준	LG히다찌(주)	상무	02)705-3704	
67	전성한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02)3477-8500	
67	정성택	(주)풀입라인	대표이사	043)642-2151~2	기 사무국장
67	정수빈	마송서울치과	경영원장	031)996-2835	
67	정재동	(주)코스콤	상임감사	02)767-8070	
67	조영대	(주)웅남	대표이사	02)332-7711	
67	조영래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031)780-4021	
67	조일봉	신공항하이웨이(주)	대표이사	032)569-6106	
67	진흥열	동국제강(주)	이사	02)317-1031	
67	최백규	두리화학(주)	대표이사	031)776-0595	
67	최진	(주)래피드어드벤처	대표이사	02)720-0888	
67	한대우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02)787-5150	
67	허철성	(주)한국아쿠르트	상무	031)899-7711	
67	황유노	현대캐피탈(주)	전무	02)3770-9607	
67	황철하	다이아몬드뱅크	대표	02)764-2277	
68	김대성	현대하이스코(주)	전무	02)2112-9013	
68	김병희	현대카드(주)	리스크본부장(상무이사)	02)2167-7493	
68	김봉수	(주)LG	상무	02)3773-2059	
68	김영부	(주)큐알티반도체	대표이사	031)630-3264	
68	김재환	현대카드(주)	이사	02)3770-9613	
68	김찬	대우증권(주)	본부장	02)768-2027	
68	김형건	SK에너지(주)	상무	02)2121-5420	
68	김활년	회계법인지평	대표	02)3420-3335	
68	나한홍	(주)대우인테리어	상무	02)759-2372	
68	노성우	(주)신한은행	상무	02)2151-4601	
68	두강현	대양한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031)984-3061	
68	명선목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032)522-8344~5	
68	박현수	효성캐피탈(주)	상무	02)2018-0610	
68	박형택	서진 S&P	부사장	02)586-2590	
68	박홍숙	울촌신약(주)	대표이사	031)782-5300	기 사무국장
68	백상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	02)3702-6510	
68	백흥종	(주)동남개발	대표이사	031)907-1708	
68	손영준	(주)주심, (주)와이제이티	대표이사	02)2667-3888	
68	신응호	금융감독원	국장	02)3145-8370	
68	심성태	KB국민은행 무역센터	지점장	02)2016-6020	
68	엄선진	(주)제이에스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31)576-1001	
68	유수훈	(주)키스컨설팅	대표이사	02)2263-3056	
68	유영근	전방(주)	이사	02)2122-6100	
68	윤종림	(주)신한은행	상무	02)2151-2970	
68	이기호	힐라코리아(주)	사장	02)3470-9540	
68	이승룡	한국씨티은행	본부장	02)2004-1890	
68	이용완	벽산 엔지니어링(주)	전무	02)767-5567	
68	이재선	(주)세창스틸/대성특수강관(주)	대표이사 회장	031)432-9958	
68	이준희	(주)클래리스	대표이사	02)2057-6450	
68	이희연	신정부기술(주)	대표이사	02)2057-3244	
68	정군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이사	02)734-7596	
68	정상훈	(주)빅텍	전무이사	031)719-2227	
68	제양현	현대모비스(주)	상무	02)2018-5031	
68	조호제	LS엠트론(주)	상무	031)428-4300	
68	차영희	전문건설공제조합	본부장	02)3284-2005	
68	최승석	(주)SK&C종합건설	대표이사	031)265-3430	기 회장
68	최영균	두산인프라코어(주)	상무	02)3398-8297	
68	최현기	에이앤디 신용정보(주)	대표이사	02)3705-7500	
68	하우훈	(주)에스원	상무	02)2129-9800	
68	한인권	대한생명보험(주)	상무	02)789-8090	
68	허정	동릉에이치엔케이(주)	전무이사	02)552-1766	
68	황영식	벽산 엔지니어링(주)	부사장	02)767-5560	

## 함께 가는 화합의 길을 걷다, 69기 수료

2010년 7월 8일, 47명의 수료자와 24명의 배우자 강좌 수료자가 참석한 가운데 69기 수료식이 연대 동문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우리 동창회에서는 김태옥 총동창회장과 송운택 골프회장(수석부회장), 임향자·현진왕 상임부회장, 박인서 사무총장, 이상규 재무부총장, 박상진 골프총무국장이 참석하여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수료식은 박상용 원장의 수료 증서 수여식에 이어 69기 동문들에 대한 시상으로 이어졌다. 교육 기간 동안 개근을 한 강승규·이동준 동문은 최우수상을, 박흥서·이계태·이동식 동문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학기 중 헌신적인 봉사로 69기를 이끈 이성복 회장과, 이동준 사무국장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윤석환 동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이철균·임종현·정승철·최영무 동문이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어진 수료식사에서 박상용 원장은 69기에 축하의 말을 전하며 “축복의 배움터인 이 곳 연세는 125년 전 선교와 자선으로 탄생되었다. 오늘 연세 AMP 네트워크의 정식 멤버가 되는 이 작은 축복이 언젠가는 큰 축복과 advantage가 될 것이며 폭넓고 견고하게 기업과 사회를 아우르는 연세 AMP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하여 동문들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도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태옥 총동창회장은 “지난 6개월간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기업 경영은 물론 인문 교양 관련 강의, 실질 비즈니스 전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교양,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좋은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또한 수료한 후에도 연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익힌 지식과 정보, 교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69기 이성복 회장은 답사를 통해 학교와 동창회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을 전하며 우리 69기는 함께 가겠다는 화합과 발전의 포부를 밝혔다.

69기 동문들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총동창회의 임원진을 대표하여 박인서 사무총장은 “신입 기수인 69기 동문들을 환영하며, 앞으로 총동창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내실 있는 69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사은회에서는 평생 회비 납부와 평생 회원패 전달,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줄 이성복, 송영천, 변희경, 박영근 부회장과 이동준, 강승규 이사의 임원 위촉식이 이어졌다. 앞으로 69기의 무한한 화합과 발전, 그리고 동창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 69기 최고경영자과정 사은회 및 수료

■ 일시: 2010. 7. 18:30 ■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연회장



기수	성명	회사명	직위	회사주소	회사연락처	비고
69	강승규	(주)목산산업	이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3-12	032)679-9091	
69	강정훈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서울 중구 다동 39	02)3455-2210	
69	구안숙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02)787-6015	
69	김계복	동국제강(주)	이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 유니온스틸빌딩 14층	02)317-1010	
69	김상우	현대캐피탈(주)	이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9-5 현대캐피탈빌딩 3층	02)2130-0001	
69	김성영	(주)신세계 이마트	상무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33-16	02)380-9600	
69	김수연	와이에프씨	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중앙빌딩 7층	02)785-2053	
69	김승동	(주)신한은행	상무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02)2151-2060	
69	김영호	삼성증권(주)	상무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빌딩 2층 강북지역 사업부	02)2020-8135	
69	김정민	(주)SD물류	대표이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 58번지	032)889-0581	
69	김중태	효림산업(주)	대표이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13-2 상우빌딩 2층	031)781-6061	
69	김진태	현대카드(주)	이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빌딩	02)3770-9612	
69	김천주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12 캐논타워	02)3450-0801	
69	김현수	(주)GS리테일	전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 GS강서타워	02)2006-2023	
69	김현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7층	02)734-7991	
69	김효상	한국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02)729-0155	
69	노정호	GS건설(주)	전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GS타워 22층	02)2005-8601	
69	박근호	두산생물자원(주)	대표이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5-6	032)680-3111	
69	박동준	계림요업(주)	대표이사	경북 구미시공단동 266	054)462-0880	
69	박영근	리더스 헬스케어	원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서울성록회관 1,2층	02)2184-3001	
69	박홍서	GS건설(주)	상무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GS역전타워	02)785-5401	
69	변희경	(주)우반반도체	대표이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호성빌딩 신관 13층	02)333-1800	
69	송영천	법무법인 청담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1 대호아이알빌딩 6층	02)599-2100	
69	안우진	(주)아이시스컨텐츠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1 청담빌딩 5층	02)3447-3388	
69	임도희	하나캐피탈(주)	부사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6층	02)2037-1113	
69	윤득중	(주)한울글로벌	부사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83-25 한울빌딩 3층	02)3442-2900	
69	윤석환	(주)대우인터내셔널	전무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세브란스빌딩 12층	02)759-2064	
69	이건호	유진투자증권(주)	전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02)368-6090	
69	이계태	(주)한국아쿠르트	상무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0	02)3449-6331	
69	이덕우	롯데쇼핑(주)	상무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빌딩 26층	02)759-7833	
69	이동식	(주)케이피케이칼	상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타워빌딩 7층	02)840-0060	
69	이동준	아주인쇄(주)	대표이사	서울 마포구 대흥동 161	02)719-7181	기 사무국장
69	이성복	UCLA미치코의원/선도 파라다이스(주)	원장/대표이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58	061)537-7528	기 회장
69	이승훈	한국아이시스(주)	대표이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 6차 18층	02)3787-0114	
69	이원근	(주)에프티앤이	사장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75-31 에프티빌딩 2층	02)3482-0853	
69	이정의	금융감독원	국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02)3145-5550	
69	이주동	희성소재(주)	상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복리 151-8	031)330-1002	
69	이창석	(주)아이템베이	대표이사	서울 양천구 목2동 524-1	02)2640-3451	
69	이철균	대림산업(주)	상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02)2096-6009	
69	임중현	SK에너지(주)	상무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02)2121-7333	
69	장두실	박산엔지니어링(주)	이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솔로몬투자증권빌딩 7층	02)767-5461	
69	장석찬	SK에너지(주)	전무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02)2121-5050	
69	정대일	(주)성원에드피아	대표이사	서울 중구 필동 2가 128-6 성원빌딩	1599-5555	
69	정승철	SK에너지(주)	상무	인천 서구 원정동 100	032)570-5004	
69	정응호	(주)선택	대표이사	대구 서구 중리동 1120-5	053)523-4400	
69	최영무	코오롱아이넷(주)	상무이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3-2 롯데센터 9층	02)2028-9520	
69	홍두식	(주)파카니니악기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2-15	02)525-0513	



### 김태옥 총동창회장 동정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한국)

##### - C(서울) 총재에 당선

김태옥 총동창회장(시호비전그룹/회장)이 2010년 4월 9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세계 최대 봉사 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한국) - C(서울) 총재에 당선되었다.



#### 사랑의 안경 봉사 활동

김태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총재가 2010년 8월 16일 경북 성주군 초전농협에서 관내 노인 1,000여 명에게 '사랑의 안경 봉사' 활동을 펼쳤다. 국내 최대 안경 유통 기업인 시호비전그룹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임원 등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 재호주 교민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김태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총재가 2010년 7월 1일 호주 시드니의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시드니 재호주 교민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제93차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6월 23일 출국했다. 김 총재는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호주 교민들을 위로하고 봉사금을 전달하였다.

#### Eyewear Gallery ( '古 안경 갤러리' ) 오픈

김태옥 총동창회장이 2010년 3월 26일(금) 시호비전그룹 본사 사옥 시호에비뉴에서 국내 최초 매장형 안경 갤러리와 휴식 공간 멤버십 클럽을 Open하였다. 국민 눈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시호비전그룹이 국내 최대 안경 그룹으로 도약하면서 30여 년간 수집한 동서양의 고안경과 희귀 안경 등을 통해 안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안경 체험장 및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갤러리 오픈을 기념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정 등 500여 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 주는 '사랑의 안경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 이천시 명예시민 위촉

김태옥 총동창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에 이어 2010년 3월 9일(화) 이천 시청에서 조병돈 이천 시장으로부터 이천시 명예 시민 위촉장을 받았다. 이번 명예 시민 위촉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 - C 지구 등과 함께 이천 지역 및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 및 봉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시민에 위촉되었다.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김태옥 총동창회장(시호비전그룹/회장)이 탁월한 기업가 정신으로 소상공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09년 12월 28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3,000여 명에 안경 무료 전달

김태옥 총동창회장이 2009년 12월 15일(화)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에서 '안경 무료 전달 및 맞춰주기' 행사를 하고 노인 3,000여 명에게 안경을 제공하였다.

#### KAIST AIM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에 선임

김태옥 총동창회장이 2009년 12월 2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AIST AIM(최고경영자과정) 총회 및 송년회에서 임기 2년의 총동창회장에 선임되었다.

#### 대한민국 문화대상 수상

김태옥 총동창회장이 2009년 11월 30일(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 컨벤션홀에서 시호엔터테인먼트, 시호오페라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공연 기획으로 문화를 통한 '나눔 경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7회 대한민국 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 NEWS

## 29기 임향자 상임부회장, 서울사진클럽 제2기 입학식 거행



임향자 상임부회장(서울사진클럽/원장)이 2010년 2월 23일(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4층에서 SPC 서울사진클럽 제2기 사진 예술 CEO 과정 입학식을 열었다.

SPC서울사진클럽 제2기에는 박용철 호전실업 대표이사, 정승일 세일음악재단 이사장, 텔런트 길용우, 박현기 동서식품 부회장, 백두옥 중소기업청 청장, 이규인 코엑스 아쿠아리움 회장, 이운포스코 고문, 이지은 산부인과 병원장, 가수 현숙, 홍천수 연세대 의과대 교수 등 기업인, 교육 문화계 인사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장전배 서울경찰청 경무관, 박민호 부장검사 등 검·경·관계의 고위직 인사 56명이 수강 등록을 했다. 서울사진클럽 제2기 원우회 회장은 만장일치로 김규태 이원물산 회장이 추대되었다. 이 과정은 2010년 6월 수료 작품 전시까지 예술의 전당과 국내외의 촬영지 등에서 15주간 이어졌다. 제3기 입학식은 9월 1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있을 예정이다.

## 32기 고순선 동문, ROOMSHOT 시설 준공



고순선 동문((주)칠칠공사/대표이사)이 2010년 6월 12일(토) (주)칠칠공사 내 쇼트장에서 철 구조물 제작, 설치 및 액체 중방식 도장 전문 업체로 그간 숙원 사업이었던 ROOMSHOT 시설을 준공하였다.

## 38기 이두철 상임고문, 동국청우상 수상



본 동창회 제5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이두철 상임고문(삼창기업(주) 회장/울산과기대 이사장)이 2009년 12월 23일(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8회 동국청우상' 을 수상하였다. 이두철 상임고문은 울산과학기술대 이사장과 한국원자력기술협회 부회장, 평화울산포럼 회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기업·사회 활동을 해 왔다. 동국청우상은 동국대 총동창회장과 4선 국회의원 등을 지낸 '고 청우 최재구 선생'의 추모사업회가 고인의 활약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2년 제정한 상이다.

## NEWS



41기 이덕수 이사,  
제3회 2010 대한민국 교육  
기업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교육기업 영자  
신문 부문 대상” 수상  
/ 대통령상 포상 수상  
이덕수 이사 (주)타임즈코

어/회장)가 2010년 5월 19일(수)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2층에서 제3회 2010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교육기업 영자신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덕수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수) 한국 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전문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영어 신문(틴타임즈, 키즈타임즈, 킨더타임즈) 읽기와 영어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 47기 원제철 상임부회장, 자이언트아시아 동대문사무소 개소



원제철 상  
임부회장(주)  
자이언트아시  
아/대표이사)  
이 2010년 5  
월 4일 서울

중구 흥인동 104번지 그랜드빌딩 1층에서 자이언트아시아 동대문 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소식을 했다.

#### 48기 홍순원 동문, 사무실 이전

홍순원 동문 (주)한스컴/대표이사)이 2010년 3월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번지 신영지웰 A-402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58기 이철희 동문, 조각 전시회 개인전 개최



58기 이철희 동문(한국 건축조형미술연구소/소장)이 2010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아트파크갤러리에서 ‘winner’s face’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개인전은 퍼즐 마스크를 동전과 결합하는 작업으로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그와 연상되는 문장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내어 누가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표현했다.

#### 63기 이기원 동문, 서울 서초 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이기원 동문(광릉건설 (주)/대표회장)이 2010년 6월 18일(금) 서울 팔레스

호텔 지하1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2010-11년도 (RI 3640지구) 서울 서초 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 65기 이성천 동문, (주)빙그레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이성천 동문(주)빙그레/상무이사(마케팅 담당)이 2010년 5월 12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한국경제신문 주최,

# NEWS

한국지속경영평가원 주관, 청와대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후원한 ‘2010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 (떠먹는 요구르트 부문: 요플레)’ 을 수상하였다.

## 65기 김규봉 동문, 전무(AM사업본부 본부장)로 승진

김규봉 동문이 2010년 4월 교보생명보험(주)(AM사업본부 본부장)로 승진하였다.



## 65기 권오국 동문, 제2대 기획장 선출



65기는 지난 6월 30일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65기 제2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선을 통해 권오국((주)국일특수인쇄 대표이사) 회장이 선출되었고 박재현((주)이브릿지 대표이사)

동문이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65기는 9월 1일 19시 역삼동 그랑쉐프에서 이·취임식을 가졌다.

## 66기 김광수 이사, 중앙대 산업·창업 경영대학원 통합 총동문 회장 취임



김광수 이사(스카이창업 투자 (주) / 대표이사)가 2010년 3월 6일(토) 중앙대

산업·창업 경영대학원 통합 총동문회장에 취임하였다.

## 66기 이은희 동문, 출판기념회 개최



이은희 동문(전, (주)중소기업 유통센터/상임감사)이 2010년 2월 4일(목) 신촌 거구장 컨벤션홀에서 <사랑은 힘이 세다>의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 66기 장경득 부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장경득 부회장(메가플렉스공업(주)/대표이사)이 2009년 12월 2일(수) 코

엑스 본관 4층에서 지식경제부 주관, ‘제39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기계요소부문 대통령 표창’ 을 수상하였다.

## 67기 김용범 부회장, 사옥 이전식



김용범 부회장((주)이씨스/대표이사 회장)이 2010년 6월 25일 (금) 사무실

이전식을 가졌다. 새로 이전한 사옥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3번지 대륭포스트타워5 15층(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4번 출구 약 100m)이다.



## 동/문/계/시/판

2010. 7. 30. 기준

### 결혼을 축하합니다.

**16기 김윤배 동문 (청중건설(주)/회장) 막내 민경 양 결혼**

일시 : 2009. 5. 30 (토) 오후 4시  
장소 : 남서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17기 한세기 동문 (㈜성호철관/대표이사) 장남 영수 군 결혼**

일시 : 2009. 5. 29 (금) 오후 6시  
장소 : 호텔리베라 3층 베르사이유홀

**18기 이정재 동문 (㈜영성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회장) 장남 석진 군 결혼**

일시 : 2009. 4. 18 (토) 오후 6시  
장소 :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구. 하림각)

**19기 정승일 동문 (㈜원일석유/대표이사) 장남 우석 군 결혼**

일시 : 2010. 5. 23 (일) 오후 1시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20기 유용학 부회장 (남부지역균형발전협의회/사무처장) 차남 승도 군 결혼**

일시 : 2009. 4. 11 (토) 오후 1시  
장소 : 뮤지엄웨딩홀 (용산 전쟁기념관 내)

**26기 이관치 부회장 (㈜약국신문·장업신문/대표이사) 삼남 진우 군 결혼**

일시 : 2009. 9. 24 (목) 오후 5시  
장소 :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본당 1층 (베들레헴 성전)

**30기 윤영상 이사 (한국패션소재협회/부회장) 장남 희웅 군 결혼**

일시 : 2010. 4. 17 (토) 오후 2시 30분  
장소 :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32기 김지훈 동문 (㈜원전/회장) 막내 소희 양 결혼**

일시 : 2009. 4. 2 (목) 오후 6시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구.스위스그랜드)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33기 이용석 동문 (청록원/회장) 차남 윤 군 결혼**

일시 : 2009. 5. 9 (토) 오후 5시 30분  
장소 : GS타워 아모리스홀 (구. LG강남타워)

**36기 김석태 부회장 (새한유조(주)/대표이사) 장녀 수진 양 결혼**

일시 : 2010. 2. 27 (토) 오후 1시  
장소 : 목동 웨딩의전당 7층 그랜드볼룸

**37기 정영주 부회장 (㈜월드비전/대표이사) 장남 진우 군 결혼**

일시 : 2009. 11. 14 (토) 오후 3시  
장소 : 오펠리스 (올리브타워 20층)

**37기 조재관 이사 (토성공영(주)/대표이사) 장녀 은희 양 결혼**

일시 : 2010. 5. 9 (일) 오후 1시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38기 노귀영 동문 (창대섬유/대표이사) 장남 유섭 군 결혼**

일시 : 2010. 5. 15 (토) 낮 12시  
장소 : 성실교회 (수유역 7번 출구)

**40기 황용환 부회장 (삼환토공(주)/대표이사) 장남 성은 군 결혼**

일시 : 2009. 10. 31 (토) 오후 1시  
장소 : 호텔 리츠칼튼서울 A3층 볼룸홀

**40기 김병욱 자문위원 (강남고려병원/원장) 차남 재우 군 결혼**

일시 : 2010. 5. 16 (일) 오후 5시  
장소 :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41기 이덕수 이사 (㈜타임즈코어/회장) 장녀 지예 양 결혼**

일시 : 2010. 3. 25 (목) 오후 5시  
장소 : 영락교회 본당

2010. 7. 30. 기준

**42기 이영재 상임부회장 (주목림인터내셔널/대표이사)  
장녀 선화 양 결혼**

일시 : 2010. 2. 27 (토) 오후 6시  
장소 : 마벨리스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43기 김영택 수석부회장 (주아이비김영/회장)  
장남 선우 군 결혼**

일시 : 2009. 5. 22 (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빌라드베일리

**45기 김이국 동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장남 윤홍 군 결혼**

일시 : 2010. 3. 7 (일) 오후 1시  
장소 : 강남문화센터 1층 다이아몬드홀

**48기 이경하 동문 (대원유통물산/대표이사)  
장녀 윤숙 양 결혼**

일시 : 2009. 10. 10 (토) 오후 6시  
장소 : 와이타워컨벤션 5층 그랜드홀

**50기 김주진 동문 (원남무역/대표이사) 장남 성진 군 결혼**

일시 : 2010. 4. 24 (토) 오후 6시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51기 최재식 동문 (前 한국도로공사/화성 지사장)  
장녀 이령 양 결혼**

일시 : 2009. 5. 10 (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 컨벤션 3층 (구, 공향터미널예약장)

**52기 박제훈 자문위원 (예일건설/회장) 장녀 지연 양 결혼**

일시 : 2009. 10. 9 (금) 낮 12시

장소 : 방배동성당 (서울 서초구)

**52기 박한진 부회장 (주영종하이텍/대표이사)  
자제 지영 양 결혼**

일시 : 2009. 11. 29 (일) 오후 6시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55기 최재완 동문 (주네오프라임코리아/대표이사) 결혼**

일시 : 2009. 4. 19 (일) 오후 1시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HL층 하모니볼룸

**61기 박홍득 부회장 (대호상선/대표이사) 장남 성건 군 결혼**

일시 : 2009. 4. 4 (토) 오후 1시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65기 김두열 동문 (배규태세무회계사무소/상무이사)  
차녀 지희 양 결혼**

일시 : 2009. 4. 11 (토) 오후 2시  
장소 : 청학웨딩프라자 5층 로즈마리홀

삼 가 조 의 를 표 합니다.

**26기 김종원 섭외이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교수) 빙모상**

빈소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 2010. 5. 28 (금)

**33기 박성택 동문 (예서/대표) 별세**

빈소 : 역삼 성당 (서울 강남구)  
발인 : 2009. 7. 17 (금)

**35기 이종실 동문 부군상**

빈소 :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 2010. 7. 31 (토)

**38기 유성호 자문위원 (예인가구/대표) 모친상**

빈소 : 충남 당진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10. 6. 10 (목) 오전

**39기 윤종웅 동문 (주진로/대표이사) 모친상**

빈소 :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 2009. 9. 10 (목) 오전 8시

**43기 임인배 동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부친상**

빈소 : 김천의료원 영안실 2층 특실  
발인 : 2009. 4. 7 (화) 오전 9시

**44기 강길부 동문 (한나라당/국회의원) 빙부상**

빈소 : 울산 동강병원 영안실 특2호실  
발인 : 2009. 8. 5 (수) 오전 10시

**44기 조태성 동문 (일신건영/대표이사) 부친상**

빈소 :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서울 노원구)  
발인 : 2009. 8. 21 (목) 오전 9시

**49기 김주형 동문 (前 CJ/사장) 부친상**

빈소 :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10. 2. 20 (토) 오전 7시

**50기 이수철 동문 (삼성물산/자문역) 모친상**

빈소 : 대구 경북대학병원 영안실 특101호  
발인 : 2009. 6. 11 (목) 오전 9시

**50기 현진왕 상임부회장 (은세시큐리티/은세캐피탈/대표이사 회장) 빙모상**

빈소 : 대구 송현 장례식장  
발인 : 2009. 7. 7 (화)

**52기 조경수 동문 (주OFT/대표이사) 빙모상**

빈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25호실 (서울시 송파구)  
발인 : 2009. 4. 28 (화)

**43기 임도순 동문 (강문정보문화(주)/대표이사) 모친상**

빈소 :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 2009. 11. 14 (토) 오전 6시 30분

**53기 이종화 고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모친상**

빈소 :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 2009. 8. 27 (목) 오전 7시

**53기 방동원 이사 (주)신아이엠에스/대표이사) 모친상**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10. 4. 5 (월)

**54기 최기성 동문 (감로(주)/대표이사) 빙모상**

빈소 :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203호 (서울 중구)  
발인 : 2010. 2. 12 (금) 오전 10시

**56기 백정호 동문 (주)동성화학/대표) 빙부상**

빈소 : 남천성당 제17도실 (부산시 수영구)  
발인 : 2009. 11. 18 (수)

**62기 박복수 부회장 (사운드파이프코리아(주)/사장) 모친상**

빈소 : 순천향병원 VIP실  
발인 : 2010. 3. 6 (토)

**63기 최재진 이사 (인성종합건설(주)/사장) 빙부상**

빈소 : 인천길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501호실  
발인 : 2009. 5. 10 (일)

**64기 송윤택 골프회장/수석부회장 (주)윤성 T&A/대표이사) 모친상**

빈소 : 대구 파티마병원 영안실 501호  
발인 : 2009. 8. 10 (월) 오전

**64기 송윤택 골프회장/수석부회장 (주)윤성 T&A/대표이사) 빙모상**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 2010. 4. 15 (목)

**65기 배문환 동문 (하나은행/연금신탁본부장) 모친상**

빈소 :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분향실  
발인 : 2009. 9. 15 (화) 오전 10시

**66기 이주섭 부회장 (주)삼희인스트루먼트/대표이사) 모친상**

빈소 : 경북 안동 성소병원 영안실 6호  
발인 : 2009. 4. 19 (일) 오전 10시

**68기 박홍숙 이사 (울촌신약(주)/대표이사) 모친상**

빈소 : 순천의료원 5호실 (전남 순천시)  
발인 : 2010. 2. 23 (화)

## 회사주소 변경안내

3	이익범	동양제지공업(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5-15 장수빌딩4층	02)2633-1651
5	노도희	재 도미니카공화국 / Av.Rómulo Betancourt No.1516,Edificio Thalys,Suite H,3er Piso,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809)533-6650
7	고광원	前 삼화실업(주) 대표이사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774-2	041)543-3330
7	권준상	(주)실버코치/뽕엘동산교회 목사 /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	070)8210-5844
7	박영식	(주)삼성잉크 사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6 반월공단 D동 21-16	031)491-3441
7	이진욱	CCIM한국협회 고문 /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0-31 신성위너빌딩2층	02)2052-8005/6
7	임중순	동신금속(주) 회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01-3	02)2295-5001
7	최재원	재단법인 도덕청 청장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17 아시아빌딩 201호	02)929-1333/070)8861-8398
8	신동화	극동다이아몬드공업(주) 대표이사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400	031)969-0842
13	박찬호	(주)유구엔지니어링 회장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7 코오롱빌라트 713호	02)529-5974
14	서승훈	Korea Family House 대표이사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27-5	03)692-0381
16	강학송	서울도심재개발관리(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7-1 남부종합상가 1층 64호	02)780-5042
16	조성대	(주)전국특송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2 거목빌딩	02)570-2117
16	조형식	유성알에이(주) 대표이사 / 서울 중구 북창동 17-4 유성부동산	02)755-3151
18	김한규	(사)21세기한중교류협회 회장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6 동양애니메이션빌딩 7층	02)753-0008
18	성준제	(주)하이드로소닉 부사장 / 인천시 계양구 효성2동 600-1번지 부평4공단	02)963-3061
19	여인갑	(주)시스코프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1-3 초석빌딩 2층	02)2168-8600
20	신인호	한국기술정보연구소/교보증권 소장/고문 /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69-3번지	02)783-7376~8
20	이준배	대양칼라(주) 대표이사 /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03-7	031)943-2722
20	유봉학	남부지역균형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빌딩 707호	02)761-1500
21	유석호	림스상사 대표 / 서울 송파구 문정동 37-12번지 2층	02)414-4233
21	임명규	림스상사 이사 / 서울 송파구 문정동 37-12번지 2층	02)414-4233

2010. 7. 30. 기준

22	정대준	(주)슈브 앤 파트너스 부회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 9층	02)783-7574
23	명영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고문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22-11	02)535-0864
23	천영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56 교육학과	02)910-4730
24	이창순	(주)이노컴 대표이사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02)2664-2631
24	박근순	대영유비텍(주) 정보시스템사업부 회장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동602호	070)7432-3165
25	김태욱	시호비전그룹 회장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화관빌딩 8층	02)3446-5001
27	서기남	CS Overseas Trading 대표이사 /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현대(아) 21동301호	02)792-6095
27	손욱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익동 864-1번지 광고테크노밸리 C동 107호	031)888-9158
27	이동진	성신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인천 서구 마전동 909-3	032)567-7411
28	안민호	롯데관광(주) 크루즈사업본부 본부장 /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8층	02)2075-3411
28	장인성	(주)자이링크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009호	02)564-7951
30	채수삼	(주)그레이트 커뮤니케이션 회장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4번지 그레이트빌딩	02)2168-5500,1
31	양준홍	풍산개발(주)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종림동 128-104 실로암빌딩 601호	02)3147-2980
31	이왕열	기네스리그룹(미국링컨대 대외협력처 부처장) 회장 / 서울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5상가 212호	02)415-9393
31	장용섭	(주)명성 E&T 고문 /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82-13 3바-117호	031)319-0826
32	최재진	(주)노송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72-5번지	031)953-3555
33	김재업	중앙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6 기명빌딩 301호	02)595-5549
33	박성대	상도전기통신(주) 대표이사 / 서울 노원구 월계동 562 월계공단 501호	02)995-1258
33	장영균	(주)두산 고문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70 연강빌딩 10층	02)708-5902
33	전원태	(주)MS헬스케어 회장 / 부산 사상구 학장동 264-5	051)311-5551
35	이광수	(주)선일C.S 대표이사 / 서울 강동구 길동 389-2 동선빌딩 304호	02)471-9557
35	이성욱	(주)삼천리알이 대표이사 /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3-2 현성빌딩 405호	031)861-7736
35	노승균	(주)반도양행 대표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87 동의보감타워1805호	02)514-9032
36	배은출	아세아세무법인 대표이사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4-1 한일빌딩 3층	031)382-3035
36	이규영	(주)일신커튼월 대표이사 / 서울 광진구 중곡동 245-5 2층	02)518-1015
37	김응모	대원홍산(주) 대표이사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77-9	02)3409-3251
38	김상섭	연경전자(주) 대표이사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 부천춘의테크노파크 102동 701호	032)675-2217
38	박주일	락희제약(주) 회장 /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618-5 하이테크팜	031)986-3233
38	신현식	천보공영(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4-1 풍원빌딩 603호	02)2055-0588
38	엄승길	우리디자인(주) 부회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9-2 금문빌딩 601호	02)557-2308
38	이용순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건물 19층	02)757-7082
38	이종호	PP(주) 평화 대표이사 회장 /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0-1번지	02)431-0114
38	임무성	가림엔지니어링(주) 사장 /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0-2 하이포트 814호	0505)800-6000, 7000
39	김병하	일경산업(주) 회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527-8번지 신원빌딩 501호	031)480-0121
39	서명수	(주)오양파테크 대표 /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24층 13호	02)756-2541
39	유인학	세계거석문화협회/한양대학교 총재/교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46-20 대응빌딩 201호	02)3443-1567
40	김병욱	강남고려병원 원장 / 서울 관악구 봉천6동 36-83	02)876-7611
40	유재환	하이호경금속(주)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19번지 동남빌딩 8층	02)514-6671
40	윤의권	(주)더굿 회장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3-21 2층	043)284-1000
41	김성수	종이와연필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0-3 진양상가 2동 614호	02)2234-4211
41	김중성	한화역사(주) 고문 /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6층	02)729-1468
41	이덕수	(주)타임즈코어 회장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 이엔씨드림타워 8층 808호	02)2628-5800

42	김용우	동서법무사 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종합상가 206호	02)565-0707
42	배경호	신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220-6	031)862-6430
42	이명래	세무법인 공평 회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11 대우도시에빛 2차 804호	02)521-8901
42	전상표	현진그룹 회장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1 현진에버빌타워	031)465-4526
42	황영기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소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6-5 201호	02)3468-2636
43	김순무	(주)한국아쿠르트 고문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번지 LG트윈텔2차 12층 1210호	02)565-1222
43	유종연	은원개발(주) 대표이사 / 경기 시흥시 거모동 193-5번지	031)319-2725
43	이정석	(주)우리별텔레콤 대표이사 / 경기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산업단지 D-5	031)980-7500
43	허종	미건알텍 대표이사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9-8번지 시화공단4 라-507호	031)488-9848
44	박병길	(주)길우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23-4 월드프라자 601호	02)2634-9865
44	신원길	세보해사기연 회장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70번지 에이스하이테크21빌딩 1902호	051)462-6888
44	조성대	(주)아나패스 대표이사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디지털센터 6층	02)6922-7400
44	최세용	세종합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4-1 성암빌딩 201호	02)323-0051
45	김영삼	대한제분(주) 전무이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상공회의소회관 14층	02)777-9367
45	김진한	(주)엔이티 대표이사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4-10	02)3663-8400
45	이종섭	연대 원주기독병원 장례식장 소장 /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번지	033)744-3970
45	최경직	B&A Korea 대표이사 / 경기 김포시 사우동 570-1번지	070)8807-1702
46	선우영준	뉴워터 사장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03-4	031)901-1271
46	이호진	(주)레이디CNF 대표이사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303동 705호	032)327-2581
47	원제철	(주)자이언트아시아 대표이사 / 서울 강서구 방화동 645-42 자이언트빌딩 3층	02)2665-3715
47	이상규	(주)유앤아이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0번지 우수 CNS 빌딩 5층	02)514-1188
47	이재원	(주)신진금고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39 명동아르누보센텀1001호	02)2267-8833
47	허문	(주)GC코리아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9-3 제니스타워 6층	02)515-6075
48	김성배	클래맨스캐피탈 부사장 /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4-1 용산파크타워 103동 1103호	02)737-2750/2700
48	김흥진	(주)흥진가구 대표이사 / 경기 김포시 화성면 화사리 36-2번지	031)987-0516
48	유지호	S&B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4-13 새들빌딩 4층	02)546-6693
48	홍순원	(주)한스컴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번지 신영지웰 A-402호	02)717-0015
49	강신원	대한아우토모빌코팅 부회장 /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리리 760-2	031)8059-9501
49	양준호	호정물산(주)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6 중앙인더스피아5차 510호	031)739-5136
49	이규균	(주)영호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동부션빌 오피스텔 806호	02)3446-2973
49	정규성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02)3774-3102
49	한욱	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정원빌딩 7층	02)784-7331
50	김재중	(주)에스피치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15 중평빌딩 3층	02)3420-9100
50	박달영	동양PC(주)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413호	02)2638-7750
50	배경식	(주)케이에이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 보암빌딩 607호	02)852-2523
50	현진왕	온세시큐리티(주)/온세캐피탈(주) 대표이사/회장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703호	02)2108-1751
51	김철	(주)P&TEL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1 흥우빌딩 8층	02)538-2891
51	이영미	(주)세미성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7 세방타운하우스 202호	02)558-8403
51	최진수	(주)아이스타TV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5번지 모나코비존 1801호	02)543-0100
52	구본근	경인전력(주) 대표이사 / 경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117	032)501-3800
53	김경남	(주)팩시아커뮤니케이션/주)팩시아소프트/주)폰터스글로벌 대표이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18층	070)7116-5980
53	김춘배	타미우스골프장 대표이사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번지	064)793-0707
53	서향수	(주)그랜트시스템 상임고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3 창해빌딩 2층	02)2050-7904
53	송형석	에드피어(주)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73-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5층	02)517-0533

2010. 7. 30. 기준

53	윤영	(주)디원에셋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 삼성빌딩 3층	02)6933-8801
53	이상용	(주)디자인블루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7번지 이스타빌딩 3층	02)515-6333
53	이종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4층	02)6085-3631
53	정낙풍	썬프로상사(주) 대표이사 /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8-7 염창빌딩 5층	
53	최병렬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6	02)380-5001
53	최중권	POD World(주) 대표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62-5 시스케이트빌딩	031)423-4258
54	송호준	(주)제이비에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501호	070)7113-1015
54	이원태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사장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한통운 13층	02)3782-0005
55	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 /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7-20 아라타워 14층	02)501-6928
55	김태영	킴스개발그룹 대표이사 /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0-21 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5층	02)3393-8078
55	박명진	(주)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05-13 동명빌딩 7층	055)325-0900
55	박인규	(주)잭필드코리아 대표이사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1 송내테크노밸리 5층	032)620-9900
55	서현도	(주)청운산업 대표이사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62번지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607호	032)667-0078
55	이계관	환인제약(주) 감사 / 서울 송파구 문정동 84-1	02)405-3000
55	이성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95-5 삼성빌딩 4층	02)784-3854
55	임종기	(주)스마일 대표 / 서울 은평구 구산동 198-1	02)355-4283
55	허방	한백인더스트리즈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빌딩 222호	02)761-3057,8
56	김경희	(주)새천년 대표이사 / 서울 양천구 목동 923-14 스포츠조선사옥 1021호	02)2649-4114
56	주민중	사단법인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수석부회장 /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지하층 88호	02)779-0887
56	김한수	충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2번지 우리은행빌딩 5층	031)707-9005
56	한관영	(주)삼성SMD 상무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주)삼성SMD 수주개발2팀장	02)415-9393
57	이통형	(주)아이즈비전 대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701호	02)6330-5010
57	김석철	(주)동화자동차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4 벽산6차 1207호	02)2627-3111
57	김윤희	(주)유니츠커머스 대표이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번지 디지털엠퍼라이어2차 103동412호	031)695-7045
57	김제수	(주)온피스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0 자강빌딩 2층	02)577-2016
57	박석홍	(주)에이원건설그룹 CEO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7-39 서전빌딩 3층	
57	박영석	현대증권 상무 /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1 현대증권빌딩 4층 현증회	02)564-2511
57	이관훈	CJ 헬로우비전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6번지 CJ E&M센터 14층	070)8130-1027
57	조현주	(주)토로 대표 /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426-1	02)575-7107
57	최병길	(주)한국종합목재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8-6 유니타워8층	02)333-9911
58	강민구	오뉴종합건설(주) 회장 /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26 3층	02)765-0482
58	박신서	(주)문화방송 전문프로듀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길 37 방송센터3층 편성제작국	02)789-3324
58	이세형	패밀리라이프상조(주) 회장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501-1번지 자유빌딩 4층	1577-0038
59	김윤희	상림문화(주) 대표이사 / 경기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1-19	031)948-5600
59	주병학	비밀 대표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10층	02)6371-0072
60	고창석	(주)세보엠씨 부사장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7-52	031)213-5355
60	김만현	휴먼탐스 사장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8 선릉빌딩 304호	02)2051-3510
60	신영호	잉가슬랜드 코리아(주)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20-2	031)740-3101
60	신현식	(주)다송퍼시픽 대표 /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30-2 하이포트 205호	02)3665-2516
60	임응순	(주)에이스미디어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709호	02)780-3383
60	조창호	여수열병합발전(주) 대표이사 /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0층	02)729-3070
60	진광엽	법무법인주원 변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건설회관 6층	02)6710-0324
60	박성진	(주)시스테크비즈 대표이사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8-1 한양빌딩 401호	02)2636-2100
61	권오준	(주)다음세계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2층	02)799-2900(직)
61	노봉한	(주)삼우아이티 대표이사 / 서울 송파구 송파동 48-13 송파연세빌딩 3층	02)2202-2051

61	박동남	서울우유서소문고객센터 대표 /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2-35	02)392-0271, 6
61	심경섭	(주)한화 인재경영원 원장 /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64번지	031)589-2810
62	김영철	(주)신원 전무이사 /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901호	02)3274-7823
62	김채득	KTF IT기획실 상무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1 프래티넘빌딩 5층	070)8889-9710
62	박복수	사운드파이프코리아(주) 사장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번지 일신빌딩 2층	02)791-0500
62	이금기	(주)금영제너럴 대표이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0-10 중앙빌딩 3층	02)3442-1117
62	이재웅	업그레이더 대표이사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622호	02)725-0991
63	강경아	(주)송학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분당 6-43	031)778-2225
63	김영주	(주)한올글로벌 회장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17번지 그린빌딩 4층	02)6243-6000
63	박영규	(주)에이피앤피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충무빌딩 907호	
63	정인용	(주)CMT태가코리아 사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5 브띠크모나코 1907호	02)522-1071
63	황동진	금호타이어(주) 부사장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15번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10층	02)6303-8049
63	최재진	인성종합건설(주) 사장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6 인성빌딩 1층	032)437-7744
64	김도식	(주)일성미디어통신 사장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부천춘의테크노파크 2차 201동 1301호	032)623-0877
64	김수남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6번지	043)283-9000
64	김영태	SK주식회사 부사장 /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02)2121-5709
64	김학경	(주)현대증권 상무 /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1 현대증권빌딩 3층	02)501-4562
64	민영규	(주)서강이앤 회장 / 서울 강서구 등촌동 560-7 서강빌딩	02)338-3314
64	박재점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올리브타워 17층	02)2001-3400
64	송수진	피그 대표 / 서울 강남구 청담동 93-11 쿤빌딩 지하 1층	02)518-7082
64	이향구	명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 강남구 청담동 43-9 월일빌딩 608호	02)542-3545
65	김구봉	교보생명보험(주) 전무(AM사업본부) /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02)721-2063
65	박재홍	외환은행 / 고문 서울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6층 비서실	02)728-6790
65	손윤호	HM디지털 대표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 10차 610호	02)893-7291~5
65	손장익	현대제철(주) 상무이사(경영지원실장)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마케팅실	02)3464-6021
65	이기동	HMC투자증권 전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0층 WM사업본부	02)3787-2464
65	이용근	(주)다함피앤피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1106호	02)2626-8630
65	한익준	(주)한성에이치앤씨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번지 라이프오피스텔 630호	02)783-4777
66	김민수	태원비엠씨(주) 대표이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9-5번지 6층	031)717-8321~6
66	김재숙	휴스존(주) 사장 /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9번지 가든파이버 옥스A동 1001호	02)773-1918
66	복진환	(주)아이넷스쿨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16번지 IT캐슬2차 13층	02)2652-1616
66	송호경	(주)소학레저개발/그린월드호텔 사장 / 강원 속초시 노학동 972-6	033)636-4000
66	이종한	(주)대동식품 대표이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9-4번지	02)2661-3913
66	한승기	한성마그네틱 대표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5-7번지	02)807-9333
67	강명희	(주)리치어드벤처 대표이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1316-5 부띠꼬모나코2507	02)540-0655
67	김낙찬	(주)현재어학원 이사장 / 서울 서초구 반포동53-5	02)595-4177
67	김승탁	현대자동차 전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02)3464-5030
67	김용문	룽플란트치과그룹 대표원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번지 스카우트빌딩 305호	02)782-2282
67	김용범	(주)이씨스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3번지 대룡포스트타워 5차 1501호	02)850-9600/850-9601
67	김윤태	현대캐피탈(주) 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번지	02)2167-6879
67	김정대	유진S&ST 대표이사 /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67 중앙철재상가 23동 301호	02)807-4831, 2
67	문무경	(주)웅진플레이도시 대표이사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2-1	032)310-8010
67	온용현	금호피엔비화학 대표이사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15번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21층	02)6303-3403
67	최진	(주)래피드어드벤처 대표이사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30-1	02)720-0888
68	노성우	(주)신한은행 상무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대경빌딩 12층 퇴직연금사업본부	02)2151-4601

## 동창회 수익 사업 안내

★ 본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목을 도모하는 동창회의 특성상 지출 대비 고정 수입이 없기에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동창회에서는 동창회 자체 수익 사업으로 재정을 확충해 동문님들께 돌아가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동창회 자생력을 키워나가려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화환과 제휴형 법인 보험, 여행 창구>를 개설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창구를 통하여 화환과 보험, 여행 상품 계약을 하면 일정 금액이 동창회로 적립됩니다.

★ 현재 여러 동문님께서 동참하고 계시으나 그 수가 아직은 미미한 단계입니다.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동창회를 위한 사업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창회의 발전에 일조하신다는 생각으로 본 동창회 수익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화환과 보험 담당자가 동문님들께 개별적으로 방문을 드릴 예정이오니 연락 시 부디 협조 바랍니다.

### - 아 래 -

구 분	화환 사업	보험 사업	여행 사업
업체명	연세 AMP 플라워	연세 AMP INS(주)	연세투어
담당자	김민수 대표	윤학식 이사	
연락처	010-6433-3113 031-971-3235	010-9193-1672	1644-3601 www.yonseitour.com
사업분야	각종 화환 일체	자동차, 화재, 퇴직연금, 배상책임, 상해, 장기 등 각종 보험	하나투어 여행상품
동창회 수익금	주문 금액의 10% 적립 (동양난은 15%)	1년 보험료의 10%~17% 적립	상품 결제 금액의 1% 적립
특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본 상단에 주문하시는 동문님의 회사 로고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 요청 시에 한함 / 서울지역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문 회원 개인 및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험 계약 업무의 무료 컨설팅, 맞춤형 상품 안내, 최적 보험료 제시, 우수 보험사 선정과 계약 체결, 사고 시 원활한 보상등의 차별한 된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li> <li>연세 AMP INS(주)는 국내 대형 7개 보험사 (삼성, 현대, 동부 등)와의 계약 대리점이므로 보험회사는 동문님들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li> <li>현재 동문님께서 가입하신 보험료와 비슷하거나 혹은 대다수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 보다 유리한 설계와 견적을 확보하기 위해 제휴 된 전문 보험 중개 법인을 통해 외국 우수 재보험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등 여행사 하나투어 여행상품 가격의 3% 할인 또는 연세동문만을 위한 VIP 특전 중 택일</li> <li>동문 VIP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라면세점 최대 15만 원 상품권</li> <li>- 웨라톤 워커히 2인 식사권</li> <li>- 인천공항 라운지 2인 이용권</li> <li>- 주유상품권</li> <li>- 인천 공항고속도로 왕복통행료 무료</li> <li>- 발렛파킹+주차 2일 무료 등</li> </ul> </li> <li>★결제 금액대별로 특전 내용은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li> </ul>

※ 각종 사업에 관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국(02-702-7554)이나 사업 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 고려 홍삼진골드

## 高麗紅蔘眞GOLD

**6**年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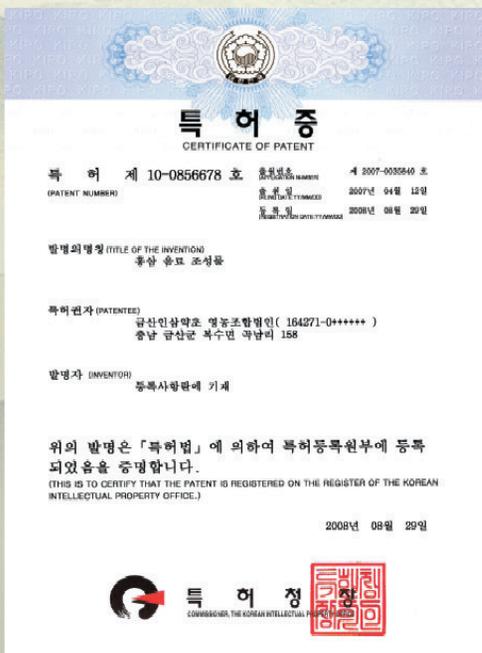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제2007-가-0012호

**고려홍삼진골드**

건강기능식품 (원기회복, 면역력 증진, 자양강장에 도움)

세계가 놀라는 고려홍삼의 효능  
국민 모두가 선호하는 최고의 선물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 **특허청장 홍삼진 제법발명특허증**



● **6년근 고려홍삼진골드란?**

저희 '금산인삼약초영농조합'은 국내에서 재배된 양질의 6년근 인삼(수삼)만을 엄선하여 제품원료로 사용합니다. 본 제품 고려홍삼진골드(高麗紅蔘眞GOLD)는 대한민국 특산품인 고려인삼(수삼)을 껍질을 벗기지 않고 증기로 쪄 건조시킨 홍삼을 저온에서 추출하여 홍삼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아 고농도로 농축화한 제품으로 고형분 64% 이상이며, 홍삼의 대표적 유효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70mg/g 이상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 액상타입의 제품으로 섭취가 편리하며, 피로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의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紅蔘)은 제조과정 중 우리몸에 유익한 여러가지 새로운 생리활성 성분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생리활성 성분들은 수삼(水蔘)이나 백삼(白蔘)에는 없고 홍삼(紅蔘)에만 있는 홍삼 특유의 성분이다. 특허청 특허특득 제조법으로 증삼과 숙성을 거쳐 생산되는 6년근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해도 좋으며 인체에 매우 유익합니다.



고려홍삼진골드 (120g×5병) ₩298,000

# 연세 AMP 플라워

안녕하세요. 연세 AMP 플라워입니다.

연세 AMP 총동창회의 화환 지정 업체인 <연세 AMP 플라워>에  
화환을 주문을 하시면 **주문 금액의 10%를 동창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사업명 : 화환 주문 기부제 운영 사업
- ◆ 지정업체 : 연세 AMP 플라워(www.yesflower.biz)
- ◆ 대표 : 김민수 (H.P 010-6433-3113)
- ◆ 주문방법 : 연세 AMP 플라워 또는 동창회 사무실로 주문
- ◆ 연락처 : 연세 AMP 플라워 TEL : 031-971-3235  
FAX : 031-973-6777  
연세AMP총동창회 TEL : 02-702-7554  
FAX : 02-702-5011
- ◆ 기부내역 : 연세 AMP 지정 업체 화환 주문시 주문 금액의  
**10% 금액이 동창회로 자동 기부**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24-0172-504 (예금주 : 이영미)
- ◆ 특이사항 : 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② 요청시 리본에 발송 회사 로고 인쇄 가능  
③ 기부 내역은 주문한 동문 명으로 홈페이지 및 정기총회시 공지  
④ 365일 전국 꽃배달 가능



3단 경조 화환  
100,000원 이상



꽃다발, 꽃바구니  
50,000원 이상



과일꽃바구니  
80,000원 이상



동·서양난  
60,000원 이상



관엽(화분)  
50,000원 이상



# 보이지 않는 내일까지 연세 AMP입니다.

당신의 알 수 없는 미래, 이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보험도 연세 AMP의 제휴형 법인 보험 창구를 찾아주세요.

지금 연세AMP  
법인 보험창구에서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1 각종 보험 계약은 물론 무료 컨설팅이 가능

2 우수 보험사 선정은 물론  
사고 시 원활한 보상이 가능

3 맞춤형 상품 안내 및  
최적의 보험료를 제시

4 제휴된 전문 보험 중개 법인을 통해  
외국 우수 재보험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5 국내 대형 7개 보험사(삼성, 현대,동부 등)와의  
계약을 동문님들이 직접 지정할 수 있음

업 체 명 : 연세AMP INS(주)

연 락 처 : 010-9193-1672

사업분야 : 자동차, 화재, 퇴직연금, 배상책임, 상해, 장기 등 각종 보험

1년치 보험료 중 10~17%는 동문회 발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인터넷주소창에

www.yonseitour.com

연세AMP 동문들만을 위한 여행

같은 여행! 다른 혜택! 연세특어

통행료 무료

free >>>

발렛 무료

주차 무료



연세 AMP 동문들만을 위한 VVIP 특전



공항고속도로 왕복 무료 이용권

Lounge 인천공항 라운지 2인 이용권



발렛파킹 및 주차2일 이용권



쉐라톤 그랜드 워커히 커플 식사 이용권



GS칼텍스 주유권



인터넷라운지 무료음료권



신라면세점 금액권(최대 15만원)



GS Books 도서 교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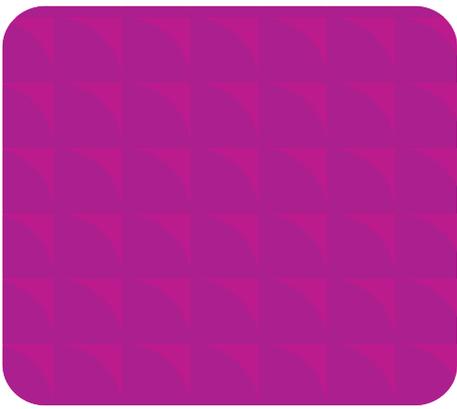
여행상담 1644-360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하나투어 HANATOUR

상기혜택은 결제상품가격별 차등 지급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연세투어에서 판매되는 전 상품은 하나투어에서 공급됩니다.

연세동문께서 구매해 주신 총 금액의 1%는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증됩니다.



SEEHO  VISION



안경이 당신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GOOD EYEWEAR GIVES YOU SUCCESS



전국매장안내      

서울 청담점 화천회관빌딩 지하1층 02-547-0500 신세계 백화점 본점 12층 02-310-1935 가양점 이마트 2층 02-3662-0890 상봉점 이마트 3층 02-496-5015 신월점 이마트 1층 02-2602-9001 창동점 이마트 1층 02-993-9001 강동점 홈플러스 3층 02-484-9002 강서점 홈플러스 2층 02-2658-8700 영등포점 홈플러스 1층 02-2675-5923 금천점 홈플러스 2층 02-890-8056 구로점 롯데마트 3층 02-2635-1996 경기 부천점 역사 이마트 4층 032-667-9001 분당점 이마트 3층 031-714-9001 산본점 이마트 2층 031-392-9010 수지점 이마트 2층 031-276-3745 시화점 이마트 4층 031-498-8096 부천여왕점 홈플러스 지하1층 032-678-6751 상동점 홈플러스 1층 032-328-9770 송탄점 홈플러스 지하1층 031-665-9119 시화점 홈플러스 1층 031-319-0732 안산점 홈플러스 2층 031-412-8033 영통점 홈플러스 3층 031-206-9795 의정부 홈플러스 2층 031-850-8237 작전점 홈플러스 1층 032-548-9754 파주문산 홈플러스 3층 031-953-6677 평촌점 홈플러스 지하1층 031-383-9100 풍무점 홈플러스 지하1층 031-981-5002 남양주 진접 홈플러스 1층 031-574-3888 인천논현점 홈플러스 지하1층 070-4149-3322 일산킨텍스점 홈플러스 1층 031-919-0470 부평점 롯데마트 지하1층 032-508-3991 수지점 롯데마트 2층 031-897-8145 삼산점 롯데마트 지하2층 032-525-3330 안성점 롯데마트 2층 031-653-0444 안산운동장 롯데마트 1층 031-483-7750 평택점 롯데마트 2층 031-657-7206 화성점 롯데마트 1층 031-205-0255 영종도 롯데마트 3층 032-636-0459 동두천 롯데마트 1층 031-857-7890 인천검단 롯데마트 2층 032-562-8786 아탑점 키스클럽 지하2층 031-702-6007 영남 김천점 이마트 3층 054-431-9100 해운대점 이마트 지하1층 051-747-0302 김만점 홈플러스 1층 051-638-8861 거제점 홈플러스 지하1층 055-680-0900 김해점 홈플러스 1층 055-330-8204 구미점 홈플러스 지하1층 054-462-0408 동래점 홈플러스 지하1층 051-553-6860 남대구점 홈플러스 1층 053-655-2060 성서점 홈플러스 지하1층 053-521-0697 센텀점 홈플러스 1층 051-743-5980 아시안드점 홈플러스 2층 051-507-0512 영주점 홈플러스 2층 054-636-0459 칠곡점 홈플러스 1층 053-607-8060 동래점 롯데마트 1층 051-554-5536 진장점 롯데마트 2층 052-288-7447 창원점 롯데마트 지하1층 055-277-9255 대구유하점 롯데마트 지하1층 053-607-2889 남천점 메가마트 1층 051-611-3030 울산점 메가마트 1층 052-287-9060 기장점 메가마트 1층 051-723-6001 중부/호남 원주점 이마트 1층 033-733-9001 강릉점 이마트 2층 033-651-1301 전주점 이마트 2층 063-272-9011 청주점 이마트 1층 043-295-9100 논산점 홈플러스 1층 041-733-7604 강릉점 홈플러스 4층 033-643-0813 조치원점 홈플러스 1층 041-864-8222 가평점 홈플러스 1층 043-237-2010 오창점 홈플러스 1층 043-218-0121 춘천점 홈플러스 지하2층 033-263-0049 군산점 롯데마트 1층 063-462-0089 전주점 롯데마트 2층 063-224-3222

[주] 시호비전 135-958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회관빌딩 8층 고객센터, 080-030-1001 T. (02) 511-5400 F. (02) 512-0080 www.seeho.co.kr